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주차별 학습 내용

주차	주차명	차시	차시명
1	〈한국한시기행〉을 시작하며 (노요한)	1-1	〈한국한시기행〉 강좌 소개
		1-2	이른 시기의 한국 한시
		1-3	삼국시대의 한국 한시
		1-4	한국 한시의 여러 양식 : 근체시
		1-5	한국 한시의 여러 양식 : 고체시, 악부, 사
		1-6	한국 한시의 여러 작가층
2	고려의 수도 개성과 한시 (노요한)	2-1	고려왕조의 도읍 개성의 아름다움
		2-2	개성의 팔경
		2-3	법왕사(法王寺)와 연복사(演福寺)
		2-4	개성 성균관(成均館)과 쌍명재(雙明齋) 계회지(契會地)
		2-5	취적봉(吹笛峯) 천수원(天壽院)
		2-6	감로사(甘露寺)와 개성 서교(西郊)
3	한시로 읽는 조선 전기의 강원도 (정용건)	3-1	조선 시대 강원 지역의 문학적 좌표
		3-2	영월 장릉(莊陵)과 단종의 비극
		3-3	단종과 김시습(金時習)
		3-4	춘천 청평사(淸平寺)와 그 한시
		3-5	이이(李珣)와 신사임당(申師任堂)
		3-6	허균(許筠)과 허난설헌(許蘭雪軒)
4	전라도와 한시: 유배와 전란, 그리고 실학 (정용건)	4-1	조선 시대 전라 지역의 문학적 좌표
		4-2	못 다 이룬 젊은 꿈의 흔적: 조광조(趙光祖)의 유배지 화순(和順)
		4-3	호남 사림의 삶과 교유: 면양정(倅仰亭)과 송순(宋純)
		4-4	호남 사림의 은거와 강학: 소쇄원(蕭澗園)과 양산보(梁山甫)
		4-5	왜란의 참상과 극복
		4-6	부안에서 태어난 실학의 단초 유형원(柳馨遠)과 『만계수록』(潘溪壽錄)
5	경상도의 유교문화와 퇴계학파학자의 한시 (김기엽)	5-1	경상도의 연혁과 풍속, 그리고 기록유산
		5-2	경상도의 동족(同族) 마을과 한시
		5-3	학자들의 강학 공간, 경상도의 서원
		5-4	이황과 그의 제자들

주차	주차명	차시	차시명
6	충청도와 율곡학파 (김기엽)	6-1	충청도의 지리적 특성과 문화유산
		6-2	율곡 이이의 한시 소개
		6-3	율곡학파의 학자들 김장생, 송시열, 권상하, 김창협
		6-4	퇴계와 율곡, 학파를 넘어선 한시 교류
7	18세기 한양의 백악시단과 여항인의 한시 (오보라)	7-1	18세기 한양의 모습과 시풍의 변화
		7-2	백악시단(白岳詩壇)의 시론(詩論)
		7-3	김창흡(金昌翕)의 한시
		7-4	여항 문화의 발달과 송석원시사(松石園詩社)
		7-5	홍세태(洪世泰)의 한시
8	금강산 유람과 유람시 (이남면)	8-1	조선 시대 유람의 풍조와 금강산
		8-2	이민구의 금강산 유람과 유람시
		8-3	이병연의 금강산 시와 정선의 그림
		8-4	박지원의 금강산 유람과 유람시
9	도회지 한양의 풍경과 백탑파 -신위의 한시 (오보라)	9-1	고동서화(古董書畫) 수집 및 장서(藏書) 열풍과 광통교(廣通橋)
		9-2	백탑파(白塔派)의 형성
		9-3	백탑파(白塔派)의 시풍(詩風)
		9-4	박지원(朴趾源)의 문학론과 한시
		9-5	시서화(詩書畫) 삼절(三絶)의 신위(申緯)
10	보다 넓은 세계에서 (이남면)	10-1	대명 외교와 한시
		10-2	조선 문사의 대청인식과 조청(朝淸) 문인 교류
		10-3	조선 통신 사행과 일본 인식
		10-4	조선과 베트남 문사의 교류
		10-5	조선과 오키나와, 태국 문사 간의 교류

강좌 개요

강좌 개발의 필요성 및 적합성

한국의 고전문학에서 한시는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시 창작은 사대부의 기본 소양으로서, 개인의 대소사에 대한 기록에서부터 국가적인 외교에 이르기까지 한민족의 어문생활은 상당 부분 한시라는 형식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런데 오늘날의 우리에게 한시는 무척 낯설고 어렵게 느껴진다. 한시는 엄격한 규칙으로 이루어진 것은 물론, 각종 고사와 시적 전통 속에서 쓰여졌기 때문이다.

한국의 전통 문학과 예술에 관심이 있는 학습자 가운데는 한시에 관심은 있되 접근할 방법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국내 학습자는 물론, 중국이나 일본의 한시에 상대적으로 익숙한 해외 학습자의 경우 한국 한시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통하여 전근대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다.

강좌의 학습 목표

- 한국 한시 창작의 시공간적 배경을 이해한다.
- 한국 한시의 주요 경향과 흐름을 이해한다.
- 한국 한시의 주요 시인과 작품을 학습하고 감상한다.

기대효과

본 강좌는 한국사의 주요 사건이 벌어진 각 지역을 배경으로 한국 한시의 흐름을 설명함으로써, 역사적·공간적 컨텍스트 속에서 한국 한시의 역사를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한국사의 굵직한 사건들과 그 사건들이 이루어진 장소, 그리고 그 사건과 관계된 인물들을 함께 살핌으로써 관념적으로만 보이던 한시를 역사와 현실의 산물로서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1주차

〈한국한시기행〉을 시작하며

주차별 차시

	차시명
1차시	〈한국한시기행〉 강좌 소개
2차시	이른 시기의 한국 한시
3차시	삼국시대의 한국 한시
4차시	한국 한시의 여러 양식: 근체시
5차시	한국 한시의 여러 양식: 고체시, 악부, 사
6차시	한국 한시의 여러 작가층

1차시 <한국한시기행> 강좌 소개

학습 목표

- <한국한시기행>의 전체 강좌 구성을 파악하고 학습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려대 한자한문연구소의 노요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강좌는 고려대학교 한국언어문화학술확산연구소가 기획하고 제작한 ‘한국 한시 기행’입니다. 전국 각지를 배경으로 하는 우리 한시의 풍경을 훑아보는 수업이 될 것입니다.

‘한시’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한문을 사용한 동아시아 지역에서 한시는 보편적으로 통용되던 문학 양식이었습니다. 한국의 문학사에서 한시는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한문의 교양을 쌓은 지식인들에게 한시의 창작 능력은 기본 소양으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개인의 일상생활에 대한 기록에서부터 국가적인 외교의 문제까지 모두 한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한시는 무척 낯설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한시는 엄격한 규칙을 따라 쓰였을 뿐만 아니라 함축적으로 각종 고사를 인용하기도 하고 오늘날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시적 전통을 따라 창작되었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한국의 전통 문학과 예술에 관심 있는 분들의 경우 한시에 대해서 잘 알고 싶지만 어디에서부터 공부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한시 기행’은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강좌입니다. 이 강좌에서는 한국 사회 주요 사건이 벌어진 각 지역을 배경으로 하는 한국 한시의 흐름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은 역사적 그리고 공간적인 컨텍스트 속에서 한국 한시의 역사를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한국 사회의 굵직굵직한 사건들과 그 사건들이 이루어진 장소 그리고 그 사건과 관계된 인물들을 함께 살피면서 어려워만 보이던 한시를 역사와 현실의 산물로서 생생하게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강좌의 학습 목표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은데요. 첫째, 한국 한시 창작의 시공간적 배경을 이해한다. 둘째, 한국 한시의 주요 경향과 그 흐름을 이해한다. 셋째, 한국 한시의 주요 시인과 작품을 학습하고 감상한다, 입니다. 한국 한시의 역사에 관심을 가진 초급, 중급 수준의 학생이라면 저희 강좌를 재미있게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과목의 특성상 어려운 한자가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

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일 중국이나 일본의 한시에 익숙한 분이라면, 동아시아라고 하는 보다 넓은 맥락에서 한국 한시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한국 한시 기행은 저를 포함해서 다섯 분의 선생님이 강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한 분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고려대학교 한자한문연구소의 노요한입니다. ‘한국 한시 기행’ 강좌 소개를 통해서 본 과정에 전체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국 한시의 기본적인 내용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 한시의 흐름과 양식 그리고 작가층에 대해 살펴볼 예정입니다. 또한 ‘고려의 수도 개성과 한시’라는 주제로 개경의 주요 역사 문화 공간을 여러분과 함께 여행하면서 그곳에서 창작된 한시를 함께 읽으면서 고려 왕조의 수도 개성이 지니고 있는 역사미에 대해서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강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BK사업팀 선임연구원인 정용건 선생님께서는 강원도와 전라도의 한시에 대해서 알려주실 건데요. ‘조선 전기의 강원도’라는 주제를 통해 단종의 비극적인 운명과 생육신 중 한 명으로 일컬어지는 김시습, 춘천의 명소 청평사에 얹힌 한시를 소개하고, 강원 지역의 유명한 문인인 이이 그리고 신사임당 모자 그리고 허균과 허난설헌 남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전라도와 한시 : 유배와 전란 그리고 실학’에서는 조선 중기 사람을 대표하는 조광조를 비롯하여 호남 지역 사람의 삶과 한시를 들여다보고 임진왜란 당시 전라도가 겪은 참상 그리고 이어서 유형원이라고 하는 실학자의 삶까지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연구교수로 계시는 김기엽 선생님께서는 경상도와 충청도의 한시에 대해서 알려주실 예정입니다. ‘경상도의 유교 문화와 퇴계학파 학자의 한시’라는 주제로 경상도 특유의 선비 문화와 교육 공간인 서원 그리고 퇴계 이황과 그의 제자들에 대한 내용을 한시와 함께 들려주실 예정입니다. 또 ‘충청도와 율곡학파’라는 주제로 퇴계 이황과 함께 조선을 대표하는 유학자인 율곡 이이 그리고 그의 제자들, 그들의 한시를 통한 교류를 조망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고려대학교 한문학과 강사로 계시는 오보라 선생님께서는 한양과 관련된 한시에 대해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먼저 ‘18세기 한양의 백악시단과 여향인의 한시’라는 주제로 변화한 한양의 문화 속에서 당대 최고의 문필가들이 모였던 백악시단과 그리고 흔히 중인층이라고 불리는 여향인들의 시 모임 그리고 그들의 작품을 소개할 것이고요. ‘도회지 한양의 풍경과 백담파 - 신위의 한시’라는 주제에서는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 한양 지식인들의 문화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특히 박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백담파 문인들과 시와 글씨, 그림에 모두 뛰어났다고 하는 신위의 한시 작품을 함께 공부하고 한시에 나타나는 조선 후기 한양의 풍경까지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고려대학교 한자한문연구소 연구원 이남면 선생님께서는 금강산과 외교와 관련된 한시에 대해서 알려주실 예정입니다. ‘금강산 유람과 유람시’라는 주제에서는 조선 후기에 유행했던 금강산 유람과 금강산을 유람한 문인들이 남긴 유람시 그리고 진경산수화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보다 넓은 세계에서’라는 주제에서는 주로 외교관으로 활동한 조선 문인들이 중국, 일본, 베트남, 오키나와, 태국인들과 교류한 한시들을 소개하고 조선 지식인들이 해외 여러 나라를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살필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국 각지의 역사와 한시를 돌아보고 외부 세계와의 교류까지 엿보는 것으로 한국 한시 기행 강좌가 마무리됩니다. 우리의 역사와 한시를 돌아보는 여행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2차시 이른 시기의 한국 한시

학습 목표

- 이른 시기의 한국 한시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이른 시기 한국 한시의 전래 양상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한자한문연구소의 노요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른 시기 한국 한시의 첫 모습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시라는 말에 대해 잠시 이야기하고 넘어갈까요. 사실 한시는 예전에는 그냥 ‘시’라고 불렸어요. 우리는 ‘시인’이라고 하면 현대의 시인을 떠올리고 ‘시집’이라고 하면 어느 현대 시인의 시를 모아서 엮은 시집을 떠올리지만 예전에는 시인이라고 하면 한시를 지은 시인을 말하는 것이었고 시집이라고 하면 한시를 모아서 엮은 한시집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20세기 이후 한글로 쓴 현대의 시를 시라고 부르기 시작하면서 그와 구분해서 전통시대의 시를 한시라고 지칭하게 된 것이죠. 이 강좌에서도 편의상 한자로 쓰인 전통시대의 시를 통칭해서 한시라고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한시를 쓰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였을까요? 조선 후기의 학자 유득공은 《고운당필기》라고 하는 저술에서 ‘우리나라 시의 기원’이라고 하는 글을 남겼는데요. 유득공은 여기에서 이른 시기 우리나라의 시로서 고조선의 기자가 불렀다고 하는 <맥수가>에서부터 후백제 견훤이 불렀다고 하는 <절영마도참>에 이르는 20여수의 작품을 들고 글의 맨 마지막에서 ‘이것이 우리나라 시의 기원이다. 만약 대동시기를 편찬한다면 마땅히 이 시들을 앞에 놓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근대 이후에 서술된 한국 문학사들은 한국 고대 시가의 시작을 대개 조선진의 인부 괭리자고의 아내인 여옥이 지었다는 <공후인> 그리고 고구려의 유리왕이 지었다고 하는 <황조가>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공후인>은 우리에게는 <공무도하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잘 알려져 있는 작품이죠. 먼저 <공후인>을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남아 물을 건너지 마오

님이 끝내 물을 건너네
님이 물에 빠져 죽으니
장차 님을 어이할까”

이 〈공후인〉은 중국 진나라 최표가 편찬한 《고금주》라고 하는 책에 배경 설화와 함께 채록이 되어서 전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후인이란 조선진의 인부 광리자고의 아내 여옥이 지은 것이다. 광리자고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배를 노 저어 가는데 한 백발의 미치광이 사내가 머리를 풀어 헤치고 술병을 든 채 강물에 뛰어들어서 건너자 그의 아내가 그를 따라가며 울부짖으며 말렸으나 미쳐 붙잡지 못하여서 마침내 그가 강물에 빠져 죽었다. 이에 그의 아내가 공후를 가져다 타며 공무도하의 노래를 지어 불렀다. 그 소리가 몹시 처량하고 비통했는데 노래를 마치고 나서 그녀 또한 스스로 강물에 뛰어들어 자살하였다. 광리자고가 이 광경을 보고 돌아와서 그 처량하고 비통한 소리를 아내 여옥에게 말해주자 여옥이 몹시 슬퍼하면서 이에 공후를 가져다가 그 소리를 다시 그려내니 듣는 이들이 모두 슬퍼하여서 눈물을 삼키지 않는 자가 없었다. 여옥이 마침내 그 소리를 이웃 여인 여용에게 전해주면서 ‘공후인’이라고 이름하였다.

이어서 고구려의 유리왕이 지었다고 하는 ‘황조가’도 함께 살펴볼까요?

“훤훤 나는 저 꾀꼬리
암수 서로 정다운데
외로운 이 내 몸은
누구와 함께 돌아갈까”

유리왕의 이 〈황조가〉는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에 실려 전하는데요. 그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리왕 3년 겨울 10월에 왕비 송 씨가 세상을 떠났다. 왕이 다시 두 여자에게

장기들어 후처로 삼았다. 한 명은 화희라고 하는데 골천 사람의 딸이었고 다른 한 명은 치희라고 하는데 한 나라 사람의 딸이었다. 두 여자가 총애를 다투고 서로 잘 어울리지 않으므로 왕이 양곡에서 동·서 2궁을 지어서 각기 그들을 두었다. 후에 왕이 기산으로 사냥을 나가서 7일 동안 돌아오지 않으니 두 여자가 다투었다. 화희가 치희를 꾸짖으며 말하기를 “너는 한 나라의 집안의 천한 첩으로서 어찌 무례함이 이렇게도 심한가?”라고 하였다. 치희는 부끄럽고 한스러워 도망쳐 돌아왔다. 왕이 그 말을 듣고 말을 채찍질하여 쫓아갔으나 치희는 성을 내고 돌아오지 않았다. 왕이 나무 아래에서 휴식을 맛보다 꿩꼬리가 날아와서 모여드는 것을 보고 감탄하며 다음과 같이 노래하였다. “훨훨 나는 저 꿩꼬리 암수 서로 정다운데 외로운 이 내 몸은 누구와 함께 돌아갈까.”

마지막으로 고구려 사람이 지었다고 전하는 <인삼찬>이라는 작품을 함께 읽고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할까요. <인삼찬>이란 인삼에 대한 찬가 정도의 의미이겠네요. 지금도 한국은 인삼이 유명하지만 고구려 시대에도 이 인삼은 아주 유명했던 것 같아요. <인삼찬>은 6세기 양나라 도홍경이 편찬한 《명의별록》에 실려서 전하는데요. 그럼 시를 함께 읽어볼까요?

“세 갈래 줄기에 다섯 잎사귀
 양지를 등지고 음지로 자라네
 나를 찾으려 오려거든
 피나무 아래를 찾아보거라”

10년생 이상의 인삼은 줄기가 셋에 잎사귀가 다섯이 난다고 합니다. 이 시는 재미있게도 시적 화자가 인삼이어서 인삼 스스로가 자신에 대해서 노래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나를 찾으려면 한번 찾아보거라.’라고 하고 있어요. 이 시는 1구가 네 글자로 되어 있는 시경체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금방 알겠죠. 그리고 두 번째 구의 마지막 자는 ‘음’이고 네 번째 구의 마지막 자는 ‘심’인데 ‘음’과 ‘심’ 모두 종성이 ‘ㅁ’으로 공통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시도 앞서의 두 시와 마찬가지로 두 번째 구와 네 번째 구, 즉 짝수 구에서 압운했음을 알 수 있겠군요.

【참고문헌】

- 김태준, 『조선훈문학사』, 심산, 2003.

- 심경호, 『한시의 세계』, 문학동네, 2006.
- 심경호, 『한국한문기초학사1』, 태학사, 2012.
- 이가원, 『한국한문학사』, 보성문화사, 2005.
- 이종묵, 『우리 한시를 읽다』, 돌베개, 2009.
- 임준철, 『전형과 변주: 조선시대 한문학의 계보적 연구』, 글항아리, 2013.
- 정민, 『한시미학산책』, 휴머니스트, 2010.
- 차용주, 『한국한문학사』, 아세아문화사, 2008.
- 국어국문학회, 『한국한시감상』, 보고사, 2010.
- 민족문학사연구회, 『새민족문학사강좌1』, 창비, 2009.
- 한국한시학회, 『한국한시작가연구』, 태학사, 1995~2011.
- 한국학중앙연구원 제공 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 한국고전번역원 제공 한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r/>)

3차시 삼국시대의 한국 한시

학습 목표

- 삼국시대의 한국 한시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고체시의 양식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한자한문연구소의 노요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삼국 시대의 한국 한시의 모습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으로 만나볼 작품은 고구려의 승려 정법사가 쓴 〈영고석〉, ‘고석을 노래하다’라고 하는 제목의 시입니다. 시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높은 바위 공중에 우뚝 솟아 있고
잔잔한 호수는 사방으로 툭 트여 있네
바위 뿌리에는 항상 물결이 치고
나뭇가지에는 늘 바람이 흔들리네
물 위에 늘 자신의 그림자 뉘어놓고
노을에 잠겨 바위 색깔 더욱 붉어라
못 봉우리 밖으로 우뚝 솟아서
흰 구름 속에 홀로 빼어나구나”

이 〈영고석〉 시는 당나라 때 서견이라고 하는 사람이 편찬한 《초학기》에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진고려정법사영고석시’라고 되어 있어요. ‘진대 고려의 정법사가 쓴 영고석 시’라고 하는 뜻인데요. 정법사의 정확한 생몰년은 알 수 없지만 《초학기》의 이 기술에 의한다면 중국 남조의 진대, 이때는 557년에서 589년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법사 역시 이 시기, 즉 6세기 중반 무렵에 활동했던 고려, 즉 고구려의 승려임을 알 수 있겠네요.

첫 번째 구의 ‘형석’은 하늘 높이 솟아 있는 바위를 말하고 ‘직’은 ‘곧게’라고 하는 뜻입니다. ‘생공’은 공중에 생겨났다는 뜻이죠. 매우 가파른 바위가 곧장 하늘 높이 우뚝 솟아나 있는 모습을 상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두 번째 구를 보면 이 바위는 평평한 호수 위에 있어서 사방으로 툭 트여 있군요. 평평한 호수 가운데 생겨난 바위니 바위가 더 우뚝 솟아 보이겠죠.

그다음 구를 이어서 볼까요. ‘암외’, 즉 바위 뿌리 부분을 보니 호수의 물결을 늘 찰랑찰랑거리고 있고 또 ‘수초’, 즉 바위 위에 있는 나무 꼬트머리는 늘 바람에 흔들리고 있어요. 재미있게도 시는 바위 아래에 쉼 없이 부서지는 호수의 물결과 또 바위 위로 끊임없이 불어오는 바람을 노래하고 있지만 결국 이 구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러한 물결과 바람에도 이 바위는 언제부터인지 모를 정도로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를 굳건히 지켜왔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다음 구절을 살펴볼까요? 그다음 구절에서는 바위의 아름다운 모습을 노래하고 있어요. ‘언류’는 호수의 물 위에 누워있다는 말인데 누워있는 것은 바위가 아니고 바로 바위의 그림자이겠죠. ‘지영’은 호수의 물이 그림자를 담고 있다고 뜻이에요. 맑은 물속에 바위의 그림자가 저 깊숙이 담겨 있는 그런 모습이 연상되나요? ‘침하’는 노을을 침범했다라고 하는 뜻인데 저녁노을이 깊어갈 때 이 바위도 하늘 높이 솟아 있어서 그 노을을 침범해서 하늘에 붉은 노을과 어우러지고 노을보다 더 붉어진다는 말이겠죠. 마지막 구절에서는 이 바위가 주변의 다른 여러 바위들보다 매우 높아서 홀로 흰 구름 속에까지 솟아나서 빼어나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 시는 바위의 모습을 시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런 시를 ‘영물시’라고 부릅니다. 간단히 말해서 사물을 노래한 시라고 하는 뜻이죠. 그런데 영물시의 경우 어떤 사물을 노래하면서 거기에 무언가를 의탁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노래하는 것은 사물이지만 거기에 다른 의미를 담는 것이죠. 이 시는 주변의 다른 바위들보다 훨씬 높아서 물결과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또 물속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저녁이면 노을에 붉게 물들어가는 그런 바위를 노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가 형상화하려고 하는 것은 굳건한 높은 바위로 비유되는 시인의 구도 정신 혹은 선정에 들어서 흔들림이 없는 고승의 고결한 정신 이런 것을 비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 볼 시는 고구려 영양왕 23년 612년에 을지문덕이 지은 ‘수나라 우익위 대장군 우중문에게 보내다’라고 하는 시입니다. 시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기한 책략은 하늘의 이치를 다하였고
 오묘한 계산은 땅의 이치를 다하였네
 전쟁에 이겨 공이 이미 높으니
 족함을 알고 그만두기 바라오”

612년 수나라 장수 우중문이 고구려를 대파하고 압록강에 이르자 고구려의 장수 을지문덕이 거짓으로 항복을 하며 우중문의 진영으로 들어왔다고 하죠. 그런데 우중문은 수나라 양제에게 “고구려 왕 고원이나 을지문덕이 오면 반드시 사로잡으라.”라고 하는 밀지를 받은 상태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때 을지문덕을 잡으려고 했는데 상서우승 유사룡이 이를 저지해서 을지문덕을 놓아주었다고 합니다. 우중문이 이것을 후회해서 사람을 보내서 “다시 의논할 일이 있으니 다시 들어오라.”라고 을지문덕에게 말했는데 을지문덕이 다시 돌아갈 리가 없죠. 을지문덕이 그 말을 듣지 않고 압록강을 건너서 고구려로 돌아가자 우중문이 기병을 뽑아서 압록강을 건너 추격했는데 싸울 때마다 고구려를 격파했다고 해요. 이때 을지문덕이 이 시를 지어서 우중문에게 보냈다고 하는군요. 그 이유는 잘 알려져 있듯이 우중문이 을지문덕의 속임수에 속아서 살수에서 수나라 군대가 대패하게 되죠.

이 시는 앞부분에서는 우중문의 빼어난 책략, 계산을 먼저 칭찬하면서도 뒷부분에서는 이만하면 되었으니 돌아가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사실은 을지문덕의 메시지는 이 후반부에 담겨 있다고 보아야 되겠죠. 살수에서의 대첩으로 본다면 신기한 책략과 오묘한 계산을 다한 사람은 우중문이 아니라 을지문덕 자신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다음으로 볼 작품은 650년에 신라의 진덕여왕이 지은 <태평송>인데요. 특이하게도 제목에 ‘송’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죠. 이 ‘송’은 ‘찬송’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니까 태평송은 ‘태평을 찬송하는 노래’라고 하는 정도의 뜻이 되겠군요. 이 <태평송>은 당나라의 태평을 찬송한 노래인데요. 《삼국사기》에 보면 진덕왕 4년 650년에 왕이 비단을 짜고 오연태평송을 짓고는 김춘추의 아들인 법민을 보내 당나라 황제에게 바쳤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시를 함께 읽어볼까요?

“대당이 큰 왕업 열었으니
 높은 황제의 계책 창성하네
 천하를 평정하여 전란이 그치고
 문덕을 닦아 백왕을 계승하였네

천하를 통치할 땐 은혜를 숭상하고
 만물을 다스릴 땐 아름다운 자질 품었네
 인덕을 깊이 닦아 일용과 부합하고
 시운에 순응하여 태평에 힘쓰네
 깃발은 어찌면 그리 빛이 나며
 징과 북은 어찌면 그리 찬란한가
 명령을 어긴 외방의 오랑캐들
 하늘의 재앙을 받아 망하였네
 순후한 풍기가 온 우주에 어리어
 원근에서 다투어 상서를 바치네
 사계절의 날씨는 촛불처럼 순조롭고
 해와 달과 별은 만방을 순행하네
 산악의 정기는 보필할 재상을 내리고
 황제는 충직하고 어진 이를 발탁하네
 삼황오제처럼 한결같은 덕 이루었으니
 우리 당나라 황실 영원히 빛나리라”

전체적으로 당나라와 당나라 황제를 찬송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참고로 이 시는 ‘소야란직금도’의 고사를 본떠서 회문체로 작성되었던 것인데요. 《삼국사기》에는 일반적인 방식으로 서사가 되어 있어서 그 원래의 모습을 알 수 없게 되어 있어요. 또 짝수구에 ‘창, 왕, 장, 강, 황, 양, 상, 방, 량, 황’이 운자인 것을 알 수 있겠죠. 위와 같은 시는 1구가 5자이면서 길이가 길다고 해서 ‘오언장편’이라고 하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압운을 바꾸지 않고 하나의 운목을 사용해서 압운한 것을 ‘일운도저’라고 부른다는 것을 참고로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시 3수를 살펴보았는데요. 정법사의 〈영고석〉, 을지문덕의 〈증수우익위대장군 우충문〉, 진덕여왕의 〈태평송〉 이 세 시의 공통점을 발견했나요? 맞습니다. 시의 길이는 모두 다르지만 1구가 다섯 글자로 되어 있는 것은 똑같죠. 이런 시형을 오언시라고 부릅니다. 1구가 일곱 자로 된 것은 7언시라고 부르죠. 1구가 다섯 글자로 된 것과 일곱 글자로 된 것이 한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형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위의 세 시는 모두 고시의 양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바로 옛날 스타일의 시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신라의 사신과 가도라고 하는 중국의 시인이 함께 지은 시를 보고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할까요? 이 가도가 신라의 사신과 연구를 주고받았다는 일화가 명나라 때 장일규가 편찬한 《요산당외기》라고 하는 책에 전하는데요. 연구는 한 사람 혹은 여러 사람이 각각 1구나 여러 구를 지어서 하나의 시를 완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한나라 무제가 여러 신하들과 함께 지은 ‘백량시’에서 시작되었다고 전하죠. 연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라 사신의 구는요.

“물새들은 떠올랐다 다시 잠기고
산 구름은 끊어졌다 다시 이어지네”

그에 대한 가도의 구를 볼까요?

“노는 파도 아래 달을 꺾뚫고
배는 물속 하늘을 누르고 있네”

《요산당외기》에 따르면 고려의 사신이 바다를 지나면서 이 시를 지었는데 가도가 거짓으로 뱃사공이 되어 아래 구절을 이어 지으니 고려의 사신이 한참이나 탄복하다가 다시는 시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고 하였다고 하는군요. 조선 중기의 학자 지봉 이수광은 “고려의 사신은 세속에 최충헌이라고 전한다.”라고 하였는데요. 이것이 사실인지는 알 수 없군요. 다만, 여기서 고려는 신라를 가리키는 말로 보아야 하겠죠. 여러분들이 보기에 어떤 시가 더 나은가요?

【참고문헌】

- 김태준, 『조선훈문학사』, 심산, 2003.
- 심경호, 『한시의 세계』, 문학동네, 2006.
- 심경호, 『한국한문기초학사1』, 태학사, 2012.
- 이가원, 『한국한문학사』, 보성문화사, 2005.
- 임준철, 『전형과 변주: 조선시대 한문학의 계보적 연구』, 글항아리, 2013.
- 정민, 『한시미학산책』, 휴머니스트, 2010.

- 차용주, 『한국한문학사』, 아세아문화사, 2008.
- 국어국문학회, 『한국한시감상』, 보고사, 2010.
- 한국한시학회, 『한국한시작가연구』, 태학사, 1995~2011.
- 한국학중앙연구원 제공 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 한국고전번역원 제공 한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r/>)

4차시 한국 한시의 여러 양식: 근체시

학습 목표

- 한국 한시의 여러 양식 중 근체시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한국 한시의 특징적 면모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한자한문연구소의 노요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 한시의 여러 양식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문학 장르와 마찬가지로 한시도 여러 가지 양식으로 나뉘는데요. 다만 어떤 기준으로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분류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일 수가 있어요. 소재나 내용별로 분류할 수도 있겠고 시 형식을 가지고도 분류할 수 있죠. 우선 소재나 내용별로 본다면 개인의 정감이나 생각을 표출한 영회시, 역사를 노래한 영사시, 사물을 노래한 영물시, 산수 자연을 노래한 산수시, 사회 문제를 다룬 사회시, 풍속을 기록한 기속시, 친구나 고인을 그리워하는 회인시, 남의 죽음을 슬퍼하는 애도시, 가공의 인물이나 사물에 빗대어서 생각과 감정을 우의적으로 전달하는 우언시, 철학적 이치를 전하는 철리시, 그림의 뜻을 풀이하거나 감상을 적은 제화시, 서적을 읽고 난 뒤에 독후감을 시로 적는 독후시, 가족이나 친구, 지인과 서신을 겸해서 주고받은 증답시 등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요컨대 시는 삶의 모든 것을 소재와 내용으로 삼을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시의 양식은 이렇게 소재나 내용으로 분류하기보다는 시 형식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이 더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중국의 학자 왕력은 《한어시율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중국의 시가를 근체시·고체시·사·곡의 네 부류로 크게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근체시와 고체시가 한시의 가장 중요한 두 양식이라고 할 수가 있고 중국의 곡은 원곡이라고 해서 원나라 때 크게 유행한 장르인데요. 우리나라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사는 우리나라에서도 한시의 한 갈래로서도 인식되기도 했고 또 여러 좋은 작품도 나왔기 때문에 한국 한시의 주요 양식으로 다루어도 좋을 것 같군요.

한시의 주요한 두 양식인 근체시와 고체시는 다시 글자 수의 많고 적음, 각 구의 글자 수가 가지런함과 들쭉날쭉함 그리고 압운과 평측에 의해서 하위 형식으로 다시 나뉩니다.

압운은 구의 끝에 음성적으로 같은 요소를 지닌 글자를 놓는 것을 말하고요. 평측은 한 구 내에서 위치에 따라서 소리의 높낮이가 다른 글자를 두는 것을 말해요. 요즘 말로 하면 압운은 라임, 평측은 톤 정도라고 생각하면 좋겠군요. 그래서 어떠한 시 형식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작가의 시 정신이 다른 모습을 띌 수가 있는데요. 거꾸로 시인들은 시상이나 시의 주제, 시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에 대응하여서 그에 적절한 시 형식을 골라서 사용했다고도 할 수 있겠어요. 뛰어난 한시 작가들은 특수한 시 형식을 선호해서 자신의 양식으로 활용하기도 했죠.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한시의 주요 양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구수나 구의 운율에 구속이 없는 시형으로서 고시 혹은 고체시라고 부르고, 또 다른 하나는 구수나 운율에 정형이 있는 시형으로서 근체시 혹은 금체시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좀 더 들어가 볼까요?

근체시는 다시 크게 둘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대개 8행이면서 중간에 대장으로 이루어진 구들을 반드시 배열해야 하는 율시가 있고요. 4행으로 이루어진 또 절구가 있어요. 길이가 율시의 절반이죠. 율시는 다시 1구가 다섯 글자로 되어 있는 오언율시와 일곱 글자로 되어 있는 칠언율시가 있어요. 이 율시의 경우 첫 번째 연을 두련, 두 번째 연을 함련, 세 번째 연을 경련, 마지막 연을 미련이라고 하는데요. 두련의 ‘두’는 머리고 함련의 ‘함’은 턱을 말하죠. 경련의 ‘경’은, 목 미련의 ‘미’는 꼬리를 말해요. 머리에서부터 꼬리까지를 순서대로 연의 이름에 붙인 것을 알 수 있죠. 오언율시에서 각 구마다 앞에 두 글자씩 더 붙으면 칠언율시가 되는데요. 함련과 경련이 반드시 대구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오언율시와 똑같아요.

다음으로 고체시는 근체시와 대비되는 한시의 한 갈래인데요. 상고시대의 가요에서부터 한위남북조 시대의 악부가행, 근체시 성립 이후 근체의 규격을 따르지 않고 지어진 시들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고체시란 근체시의 시 양식이 성립한 후에 그 이전의 시 양식을 묶어서 ‘옛 시체’라는 뜻에서 고체시라고 명명한 것이죠.

고체시에는 글자 수별로 나누어서 제언 형태인 4언·5언·7언고시와 잡언 형태인 장단구·악부가행체가 있고 구수별로 나누어서 단편과 장편, 장편은 보통 10구 이상이에요. 이 고체시의 양식에서 4언시와 잡언 악부체는 보통 독립시켜서 논하기 때문에 결국 고체시 양식에서 주요한 것은 5언고시와 7언고시이고 또 각각 단편과 장편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네요. 표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가장 간단한 형식인 오언절구부터 살펴볼까요?

조식의 ‘덕산 계정의 기둥에 쓰다’라고 하는 시를 함께 읽어볼까요?

“천 석 들이 종을 보시게
 크게 치지 않으면 소리가 없다네
 하지만 어찌 저 두류산이
 하늘이 울어도 울지 않음만 하랴”

천 석 들이의 엄청난게 큰 종은 웬만큼 세계 치지 않으면 소리가 나지 않겠죠. 큰 울림을 가지는 큰 종일수록 크게 쳐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큰 종도 하늘이 울어도 울지 않는 두류산, 즉 지리산에는 비할 수 없다고 하고 있어요. 스스로의 내면을 다잡아서 하늘이 울어도 울지 않는 두류산, 즉 지리산과 같이 되고자 다짐했던 시인의 의지를 엿볼 수 있겠죠.

다음으로 칠언절구의 예로 조선 중기의 화담 서경덕이 쓴 ‘비 온 뒤에 산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시를 보도록 합시다.

“누대에서 일어나 문득 발을 걷으매
 비 그친 뒤 산빛이 너무나도 싱싱하다
 아무리 훌륭한 화가라도 그려내기 어려우리
 구름 걷히자 드러나는 푸르고 푸른 뾰족한 봉우리”

마지막 구의 ‘드러날 노’ 자가 이 시의 시안인데요. 구름이 걷힌 뒤 푸르고 뾰족한 모습을 드러내는 산봉우리는 곧 자신에게 개시되어 오는 진리체를 상징하죠. 시인이 담박하면서도 청신한 정신세계를 지녔기 때문에 이토록 맑은 풍경을 묘사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 정신의 활동이 역동적이기 때문에 정물인 산이 드러내는 모습을 포착하고 또 표현해낼 수 있었다고 할 수 있겠군요.

마지막으로 오언율시 1수를 함께 보고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할까요? 생육신의 한 사람으로서 오세라는 별칭으로도 잘 알려진 매월당 김시습의 ‘우연히 읊다’라고 하는 시입니다.

“소나무, 대나무, 국화를 가장 사랑하나니
 세한의 마음 홀로 지키고 있기에

가시나무 꽃아서 낮은 울타리 엮고
 수풀 베어 깊숙한 오솔길 낸다
 복건은 들 사람의 멋이 많이 나고
 명아주 지팡이는 한가이 율기에 어울린다
 소산히 세상일 남겨 두고서
 경서 가로 펴놓고 고금의 일을 살펴본다”

세한의 마음이란 곤궁의 시기에도 변하지 않는 마음을 말해요. 《논어》 자한편에 ‘날씨가 추워진 뒤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늦게 시듦을 안다.’라고 하는 공자의 말에서 유래한 말이죠. 추사 김정희가 제주도에 유배가 있을 때 자신을 잊지 않았던 제자 이상적을 위해 그려 준 세한도도 바로 《논어》의 이 구절을 주제로 한 것이에요. 소나무, 대나무, 국화는 모두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것들이죠. 함련을 한 번 볼까요.

“가시나무 꽃아서 낮은 울타리 엮고
 수풀 베어 내어 깊숙한 오솔길 낸다.”

순서대로 ‘가시나무를 꽃는다’와 ‘수풀을 베어낸다.’ ‘엮는다’와 ‘만든다’, ‘낮은 울타리’와 ‘깊숙한 오솔길’이 모두 대구를 이루고 있죠. 경련도 마찬가지로 ‘복건’과 ‘명아주 지팡이’, ‘많다’와 ‘어울린다’, ‘들의 취미’와 ‘한가로운 율조림’이 각각 순서대로 대구를 이루고 있어요. 함련과 경련이 반드시 대구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오언율시의 기본 양식을 잘 지키고 있다고 할 수 있겠군요. 함련과 경련 모두 한가한 삶 속에서 살아가는 은자의 삶을 노래하고 있어요.

마지막 미련을 보면 소산히 세상일 남겨두고서 경서 가로 펴놓고 고금의 일을 살펴본다고 하고 있어요. ‘경서를 열어서 고금의 일을 열람한다’는 것은 바로 자신과 동시대 훌륭한 사람들과 벗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으면 옛 시대로 올라가서 벗한다라고 하는 ‘상우’를 말하는 것이죠. 《맹자》 만장 하에 ‘이 세상에 훌륭한 선비와 벗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못하면 다시 옛 시대로 올라가서 옛사람을 논한다. 그의 시를 낭송하고 그의 글을 읽으면서도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른다면 말이 되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그의 삶을 논하게 되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옛 시대로 올라가서 벗한다는 것이다.’라는 구절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깊은 산속에 묻혀서 홀로 한가로이 거처하고 홀로 경서를 읽으면서 고금의 일들을 점검하고, 또 홀로 천고 위의 사람들과 벗하면서 세상의 어지러움과 상관없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소나무, 대나무, 국화처럼 나 자신의 지조를 홀로 굳건히 지켜나가겠다고 하는 시인의 곧은 의지를 엿볼 수가 있네요.

【참고문헌】

- 김태준, 『조선한문학사』, 심산, 2003.
- 심경호, 『한시의 세계』, 문학동네, 2006.
- 심경호, 『한국한문기초학사1』, 태학사, 2012.
- 이가원, 『한국한문학사』, 보성문화사, 2005.
- 임준철, 『전형과 변주: 조선시대 한문학의 계보적 연구』, 글항아리, 2013.
- 정민, 『한시미학산책』, 휴머니스트, 2010.
- 차용주, 『한국한문학사』, 아세아문화사, 2008.
- 국어국문학회, 『한국한시감상』, 보고사, 2010.
- 민족문학사연구회, 『새민족문학사강좌1』, 창비, 2009.
- 한국한시학회, 『한국한시작가연구』, 태학사, 1995~2011.
- 한국학중앙연구원 제공 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 한국고전번역원 제공 한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r/>)

5차시 한국 한시의 여러 양식: 고체시, 악부, 사

학습 목표

- 한국 한시의 여러 양식 중 고체시, 악부, 사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해동악부의 양식적 특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한자한문연구소의 노요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 한시의 여러 양식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시의 양식은 시 형식을 기준으로 분류할 때 크게 근체시·고체시·사·곡의 네 부류가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한국의 고체시와 악부가행, 사 작품을 읽고 감상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언고시 작품을 보도록 할까요? 고체시는 근체시의 시 양식이 성립한 후에 그 이전의 시 양식을 묶어서 ‘옛 시체’라는 뜻에서 고체시라고 명명한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시는 《왕오천축국전》에 실려 있는 신라의 구법승 혜초의 한시입니다. 혜초는 불교의 성지를 여행하면서 견문한 것을 《왕오천축국전》으로 기록하면서 자신의 심경을 노래한 한시 5수를 중간중간에 남겼는데요. 이 시들은 실로 한국한문학사에서 작가의 이름이 밝혀진 최초의 서정 한시이자 정형의 규칙을 거의 지킨 작품이기도 합니다. 근데 ‘거의’라고 한 것은 율시풍이면서도 평측법이나 압운법에서 규칙에 벗어난 부분이 적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러한 점에서 넓게 보아서 혜초의 이 시들은 고시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작품들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완전한 율시가 한국한문학사에 등장하는 것은 거기서 1세기가 지난 최치원에 이르러서입니다. 《왕오천축국전》에서 혜초는 천축국의 풍경과 풍물, 삶의 여러 양식, 전설과 풍물 등을 산문으로 적고, 구도의 사색과 고독한 심리를 시로 표현했는데요. 먼저 혜초가 인도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파라나사국에 이르렀을 때 구도 여행의 소망이 충족된 것을 기뻐하면서 지은 시를 한번 살펴볼까요?

“부다가야 멀다고 걱정 않거늘
녹야원을 멀다 하랴

험중한 길을 시름할 뿐이요
 사나운 업풍이야 염려하지 않는다
 여덟 탑을 보기는 진실로 어려워라
 오랜 세월 겪으며 어지러이 타버렸으니
 어찌다 그 사람은 원만했던가?
 직접 눈으로 오늘 보겠네”

부다가야는 석가모니가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 곳이고 녹야원은 석가모니가 깨달은 후에 처음으로 설법한 곳으로 알려져 있죠. 시의 시작에서부터 구도 여행에 대한 기대감과 희망에 부풀어 있는 시인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겠죠. 업풍은 선업의 업이 바람과 같아서 사람으로 하여금 표류하여서 삼계를 윤회하게 하는 것을 말하기도 하고 혹은 악업으로 인해서 생긴 맹렬한 바람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서서는 실제 여행길에서 마주치는 거센 바람을 뜻하기도 하고 혹은 자신의 내면에서 끊임없이 생겨나는 선악의 갈등 심리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겠네요. 여덟 탑이란 여래탑, 보살탑, 연각탑, 아라한탑, 아나함탑, 사다함탑, 수다원탑, 전륜성왕탑을 말하는데요. 여덟 성인이 입멸한 뒤에 각각 탑을 세웠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을 붙인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혜초가 여행하던 당시에 이 탑들은 이미 오랜 세월이 타버리고 없었던 것 같아요. 원만은 득도의 바람을 채웠다는 말인데, 성불한 분들의 사적을 이제 목도하게 되었다는 기쁨을 표현한 것으로 시를 마무리 지었네요.

그다음으로는 악부 작품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본래 악부는 한대에 궁중음악을 관장한 관청의 이름이었는데요. 거기에서 연주되는 가곡이라는 의미를 지니게 되었고 그 노랫말도 악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 관청이 없어진 뒤에 시체의 명칭으로 오랫동안 존속을 하였는데 악부체 시에는 5언이나 7언의 규칙적인 형태의 작품도 있지만 불규칙한 구형의 작품도 많이 있어요. 특히 원말 명초에는 악부체를 도입한 영사악부 작품이 출현해서 그것이 조선에 일정한 영향을 끼쳤는데요. 명나라 양유정은 역사 사실과 신화를 제재로 해서 《고악부》를 지었고 또 명나라의 이동양은 역사 사실만을 소재로 삼아서 《의고악부》를 엮었죠. 후자의 영향 속에서 조선에서는 광해군 때 심광세 《해동악부》가 나왔어요.

심광세의 《해동악부》 이후에 대체로 정치적으로 불우했던 학자-문인들이 해동악부 작품을 많이 남겼는데요. 조선 후기의 성호 이익은 자국의 역사를 주제로 《해동악부》 120편을 남겼습니다. 그중 한 편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배경이 되는 사건을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요. 놀지왕이 고구려와 왜에 각각 인질로 가 있던 아우 복호와 미사흔이 보고 싶어 하자 박제상이 고구려로 들어가서 복호를 데려오고

다시 왜에 들어가서 신라에 배반한 것으로 꾸며서 미사흔을 데려오려고 했다고 하는군요. 박제상이 미사흔을 혼자 몰래 귀국시키고 얼마 후 자신은 왜인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했는데 요. 고문에도 신라에 대한 충성심을 바꾸지 않았다고 해요. 신라 왕이 그 소식을 듣고 박제상에게 대아찬을 증직하고 미사흔에게는 박제상의 둘째 딸을 아내로 맞이하게 하였다고 하는군요.

오늘 함께 보려고 하는 작품은 바로 이 박제상의 부인에 대한 이야기와 시인데요. 이익은 박제상의 일을 <우식곡>이라는 제목의 시로 남기고 그와 별도로 박제상의 아내가 치술령의 신모가 된 전설을 노래한 <치술령>이라고 하는 작품을 남겼어요. <치술령>의 소서와 시를 함께 같이 한번 볼까요?

풀이는 앞에 보인다. 처음에 박제상이 죽기를 맹서하고 처자를 만나지 않고 울포에 이르러서 이미 닳줄을 풀었는데 그 아내가 뒤따라 도착해서는 통곡을 하였다. 박제상이 말하기를 ‘내가 이미 왕명을 받들었으니 반드시 죽기로 작정하고 가는 것이다.’라고 하고 드디어 외국으로 들어갔다. 뒤에 박제상의 아내가 두 딸을 데리고 치술령에 올라가 왜국을 바라보며 통곡을 하다가 죽어서 그대로 치술령의 신모가 되었다. 지금도 그 사당이 있다.

“세상에 태어나 충신 아내는 되지 말라
 남편은 떠나 인을 이루었지만 아내는 의지할 곳을 잃었다네
 남편이 망망대해 동해 동쪽으로 갈 때에
 아내는 통곡하고 아이들이 울었지만 떨치고 떠났다네
 불에 타서 목숨 잃어 시비가 정해지니
 그 사람은 죽고 왕자만 돌아왔다 하네
 슬프고 슬프구나 어디다가 호소할까
 치술령 마루에서 아침 해를 바라보네
 아침해는 오기만 하고 가는 것은 못 보는데
 서풍에 뿌린 눈물이 하늘로 날아가네
 어룡이 나를 위해 근심하니
 비가 주룩주룩 구름이 어두컴컴
 변화하여 아예 썩지 않는 것 되었으니
 지난 자취 청산처럼 우뚝하여라
 충신과 열부로서
 절개와 의리가 둘 다 온전한 이 드물지

오늘날까지 신모사에는
 헤초 깃발에 어슴푸레 신령이 오시는 듯”

남편의 희생으로 신라 왕실에 근심이 없어졌지만 그로 인해 의지할 곳을 잃고만 아내의 슬픔을 세상에 태어나 충신 아내는 되지 말라는 강렬한 메시지와 함께 노래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한시의 여러 양식 중 마지막으로 사 작품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 사는 ‘시여’라고도 불리는데요. 당나라 말기인 9세기에 새롭게 생겨나서 다음 시대인 오대부터 송나라 까지 걸쳐서 널리 유행한 형식의 운문 양식입니다. 한국의 경우 본격적으로 사를 짓기 시작한 인물은 고려말의 이제현인데요. 《익재난고》에 장단구 15조 53편이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그 외에 이곡, 정포, 권근, 김시습 등 여러 문인들이 사 작품을 남겼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김시습의 사 작품 한 편을 함께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습은 모두 9조 9편의 사 작품을 남겼는데요. 김시습이 50대에 한국의 관동 지방을 유람하면서 남긴 사 작품 중에서 동산관에서 지은 ‘강성자’라고 하는 작품을 함께 감상해보도록 하죠. 이 강성자는 사패의 이름인데요. 사패는 사의 곡조명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 곡조에 따라서 그의 적당한 가사를 넣게 되는 것이죠.

“해변가에 외로운 동선관이 푸른 바다에 접해 있어
 바람 부는 난간에 기대어 봉래와 영주 바라보니
 푸른 파도 호한하고 몇 점 갈매기 가벼이 날아가네
 물외에 부침하는 것은 너와 내가 비슷하지만
 너는 다투지만 나는 내 형상을 잊었단다

이향 천리에서 외로운 그림자 드리우니
 귀밑머리 성성한데
 눈동자는 맑디맑아라
 괴이하다 어찌하여 천지간의 한 장정에 부쳐 사는 신세가 되었나
 만약 안기생을 만난다면 내 말을 전해다오
 천일주를 그대와 함께 기울이고 싶다고”

이 작품은 전단과 후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요즘 말로 하면 1절, 2절이 되겠네요. 전단에서는 동산관에 올라서 바닷가에 흰 갈매기들과 짝하면서 나 자신의 형상을 잊는 망형의

경지에 이르렀음을 노래를 하고 후단에서는 전단의 내용을 이어받되 약간 분위기를 전환해서 방랑자로서의 고독감을 노래했어요. 천지간의 방랑자가 되어서 자신의 그림자처럼 끝내 벗어 던질 수 없는 내면 깊은 곳의 고독감 그리고 자신이 부처 살고 있기에 살아있는 한 영원히 벗어던질 수 없는 세상의 얽매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중국 진나라 때 신선술을 익혀서 봉래산의 신선이 되었다고 하는 안기생과 함께 천일주를 기율하면서 모두 벗어 던져 영원한 자유를 얻고자 하는 바람을 담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참고문헌】

- 김태준, 『조선한문학사』, 심산, 2003.
- 심경호, 『한시의 세계』, 문학동네, 2006.
- 심경호, 『한국한문기초학사1』, 태학사, 2012.
- 이가원, 『한국한문학사』, 보성문화사, 2005.
- 임준철, 『전형과 변주: 조선시대 한문학의 계보적 연구』, 글항아리, 2013.
- 정민, 『한시미학산책』, 휴머니스트, 2010.
- 차용주, 『한국한문학사』, 아세아문화사, 2008.
- 국어국문학회, 『한국한시감상』, 보고사, 2010.
- 민족문학사연구회, 『새민족문학사강좌1』, 창비, 2009.
- 한국한시학회, 『한국한시작가연구』, 태학사, 1995~2011.
- 한국학중앙연구원 제공 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 한국고전번역원 제공 한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r/>)

6차시 한국 한시의 여러 작가층

학습 목표

- 한국 한시의 여러 작가층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여러 작가층의 작품이 지니는 특징들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한자한문연구소의 노요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 한시의 여러 작가층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과 일본도 마찬가지로겠지만 전근대 시기 한시 작가의 주류를 이룬 것은 역시 남성 사대부 작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사대부 작가들은 중국 시의 특정 양식이나 시격을 전범으로 삼아서 시를 짓는 경우가 많았어요.

중국의 시를 전범으로 삼아 시를 짓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외교의 측면에서도 필요한 것이기도 했어요. 예를 들어서 1450년 세종 32년에 반등극조사 시강 예검 이후로 조선에 파견된 명나라의 문관 사신들은 조선의 관원들과 시문을 창화했고 조선에서는 이때 창화한 시들을 엮어서 《황화집》을 간행했는데요. 이 《황화집》의 간행의 관례화는 양국 외교에서 시문 수창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계기가 되었고, 역대 《황화집》은 중국 조선 측에서나 명나라 측에서나 시문 수창을 위해서 참고하여서 대비하는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되기도 했지요.

그런데 《황화집》에 수록된 시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명나라 사신과 조선 접빈사 간의 동문의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경오 《황화집》에 수록된 중국 사신과 조선 사신이 성균관에서 수창한 시를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예검의 ‘문묘를 배알하고’라고 하는 제목의 시를 함께 보도록 하죠.

“새벽에 성균관에 가서 묘당에 배알하니
행단이 푸른 산 남쪽에 드넓게 펼쳐졌네
팔조의 가르침 베푼 기자를 생각하고
만세 종사인 공자를 우러르네
뛰어난 관리들이 기쁘게도 앉아있고
의관 차린 유생들이 즐겁게도 줄을 섰네

문풍이 어찌 해동에만 미치겠는가
 천자의 교화가 이제 온 세상에 미쳤네”

마지막에서 명나라 천자의 문풍이 바다 건너 조선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퍼져 있다고 한 것은 명나라 사신으로서 조선에 보인 일종의 우월감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조선에서는 명나라 사신의 시에 적절히 대응해서 차운하는 것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국가 외교적인 문제가 되어 있었고 조선은 이 《황화집》을 조선의 문명 수준을 드러내는 장치로서 또 중시 하기도 했어요. 다만, 중국 문인들과의 교류를 위해 전고는 대부분 중국 문헌에 의존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따라서 중국의 시를 도구로 활용하면서도 독자적이면서 또 자주적인 문명관을 담는 것이 조선 문인들에게 주어진 하나의 책무였다고 할 수 있겠군요.

그럼 위의 예겸의 시에 대한 당시의 관반사 정인지의 화운시를 한번 같이 볼까요?

“알성하고 다시 강당으로 들어가니
 행동과 담소가 봄볕처럼 따뜻하네
 풍은 같은 기계는 하늘을 찌르고
 수놓은 문장은 제왕을 보필하네
 두보의 시정의 오묘함을 얻었고
 왕희지의 필법과 나란히 하셨네
 이날 모시고 노닐은 참으로 천행이니
 내 재주 졸렬하여 부끄러울 따름이네”

예겸이 명나라 천자의 교화가 멀리 조선에까지 미쳐서 성균관의 제도와 인물이 융성함을 노래한 것에 대해서 정인지는 예겸의 빼어난 인품, 문장, 서법 등을 칭찬하며 자신의 재주 없음을 부끄럽게 여긴다고 하고 있어요. 다만 이것은 겸사일 뿐, 이 시를 통해서 명나라 사신 예겸의 환심을 사면서 동시에 정인지 자신의 넉넉한 시재를 보여주기도 부족함이 없었을 것 같군요.

외교시가 나온 김에 발해 사신의 외교시도 한번 살펴볼까요? 발해 사신의 시는 한국의 문헌에는 전하는 것이 없고 대부분 일본의 문헌에 실려서 전하는데요. 발해 사신 왕효렴이 일본에서 쓴 ‘봄날 비를 대하다. 정자를 얻었다’라는 시를 한번 감상해보도록 합시다.

“주인이 관청 주변에서 연회를 베푸니
 손님이 거나히 취하여 상경에 있는 것 같아라
 아마도 우사가 임금의 뜻 알아서
 달고 향기로운 비로 나그네 정을 적셔주는 듯”

두 번째 구의 상경은 바로 발해의 상경, 즉 용천부를 가리키는데요. 마치 발해 수도 용천부에서 하듯이 연회에서 거나하게 술에 취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는 객지임에도 상경에서 거나하게 취하였을 때가 떠오른다는 의미도 되겠군요. 그 정도로 객지에서의 연회를 마음 편히 즐기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또 향기로운 봄비가 기분 좋게 내리는 것은 비를 내리게 하는 우사가 천자의 마음을 헤아려서인 것 같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상대국 수장의 덕을 향기로운 봄비를 내려주는 온화한 마음에 비유해서 칭송한 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중국이나 일본의 경우도 그렇지만 한국의 경우도 문학이 남성 사대부 문인들만의 전유물은 아니었어요. 한국의 경우 시승, 중인과 서얼, 여성 작가들이 사대부 문학과는 또 다른 양태의 문학을 성립시켰죠. 그 가운데 조선 지배 체제에서 기능적인 직무와 말단 행정 실무를 맡았던 중인과 서리들은 여항문학을 발달시켰는데요. 상업이 발달하면서 서울이 근대 도시의 면모를 띠기 시작하자 시정 주변의 여항인들이 자신들의 문예적 취미를 발전시켜서 개별적으로 혹은 집단적으로 독자적인 문학을 발전시키게 된 것이죠. 이러한 여항시인들은 자신들만의 시를 모아서 《육가잡영》, 《해동유주》, 《소대풍요》, 《풍요속선》, 《풍요삼선》 등을 간행을 했고, 풍요사선을 간행해야 할 1917년에는 한국 한시의 총집인 《대동시선》을 간행해서 여항계층 시인들의 시를 그 속에 당당히 배열하고 있어요. 조선 후기의 역관 고시언이 《소대풍요》에 서시 격으로 쓴 ‘소대풍요 권수에 쓰다’라는 시를 한번 읽어볼까요?

“《동문선》과 표리를 이루어
 한 시대의 풍아가 빈빈하여 감상할 만하다
 귀천의 구분은 사람이 만든 것이니
 하늘이 빌려준 좋은 노래는 귀천 없이 같아라”

양반 사대부들과 여항인들의 신분 차이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지만 시는 하늘이 내려준 것이기에 좋은 시는 신분의 차이 없이 모두 같은 울림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때문에 이 《소대풍요》가 우리나라의 사대부 문인들의 대표적인 문장들을 선해서 엮은 《동문선》 그것과 서로 표리를 이룰 수 있다고 하면서 여항인으로서의 문학적 자부심을 당당하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승려의 한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고려 후기의 선승 원감국사 충지의 ‘한중잡영’이라고 하는 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한중잡영은 한가한 중에 주제 없이 생각나는 대로 읊은 것을 말해요.

“발을 걷어 산빛 끌어들이고
 대통 이어서 계곡물 소리를 듣는다
 아침 내 찾아오는 이 드물고
 두견새 스스로 제 이름 부른다”

시인은 아주 깊은 산 속 암자에 혼자 거처하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에 발을 걸어서는 창밖에 있는 먼 산을 마치 친구인 양 산방으로 끌어들이고 대나무 통을 이어서는 계곡물을 뜰 안으로 끌어와서 차갑고도 또 맑은 계곡물 소리를 듣고 있군요. 아침 내내 산방으로 찾아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이따금 두견새 소리만 들려올 뿐이라고 하고 있네요. 선가에서 말하는 언어도단의 세계를 시의 언어로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여성 작가들의 한시를 한번 살펴볼까요? 여성의 한시는 특히 ‘정감의 진솔한 발현’이라는 방향을 발달시켰는데요. 조선시대 사대부 여성들 중에는 정통 성리학의 이념을 시문 속에 담아내기도 했는데요. 기호 서인의 가문에서 태어난 임윤지당 그리고 강정일당을 그 예로 들 수 있겠네요.

임윤지당은 “나는 비록 부인이지만 하늘에서 받은 성품은 애당초 남녀가 차이가 없다.”라고 하였고 강정일당은 “부인들이라도 큰 실천과 업적이 있으면 가히 성인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두 사람은 여성 학자로서 당당히 학문의 중심에 서서 인간 주체성을 스스로 발견해 나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뜻이 잘 담겨 있는 예로 강정일당의 ‘뜰의 풀을 뽑으며’라는 제목의 시를 마지막으로 함께 보고 이 시간을 마칠까요?

“작은 호미로 우거진 잡초를 뽑는데
 시원스러운 소나기가 먼지를 적시네
 주염계 선생의 뜻에 부끄럽기는 하지만
 산 오두막 앞에 옛길을 다시 낸다오”

호미로 우거진 잡초를 제거하는 것, 시원스러운 소나기가 먼지를 적신다는 것은 모두 자신의 마음을 맑게 하여서 티끌이 없게 하는 수도의 행위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북송의 학자 주염계, 즉 주돈이는 자연의 생명의 기운을 있는 그대로 느끼기 위해서 창 앞의 풀을 베지 않았다고 하는 일화가 전하는데요. 강정일당은 비록 주염계 선생의 뜻에는 부끄럽지만 산 오두막 앞에 옛 길을 다시 낸다고 하고 있어요. 이것은 삼경을 열어두었던 옛 은자와 같은 삶을 살겠다고 한 것이죠. 이렇게 구도적 정신을 토로한 사람이 다른 아닌 조선의 여성이었습니다.

【참고문헌】

- 김태준, 『조선훈문학사』, 심산, 2003.
- 심경호, 『한시의 세계』, 문학동네, 2006.
- 심경호, 『한국한문기초학사1』, 태학사, 2012.
- 이가원, 『한국한문학사』, 보성문화사, 2005.
- 임준철, 『전형과 변주: 조선시대 한문학의 계보적 연구』, 글항아리, 2013.
- 정민, 『한시미학산책』, 휴머니스트, 2010.
- 차용주, 『한국한문학사』, 아세아문화사, 2008.
- 국어국문학회, 『한국한시감상』, 보고서, 2010.
- 민족문학사연구회, 『새민족문학사강좌1』, 창비, 2009.
- 한국한시학회, 『한국한시작가연구』, 태학사, 1995~2011.
- 小島憲之 校注, 『懷風藻·文華秀麗集·本朝文粹』, 岩波書店, 1964.
- 한국학중앙연구원 제공 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 한국고전번역원 제공 한국고전종합DB

Lecture

1차시 〈한국한시기행〉 강좌 소개

Hello everyone! I'm Noh Johann from Korea University Institute for Sinographic Literatures and Philology. It's a pleasure to meet you. This course, "A Journey through Korean Sinographic Poetry", is organized and produced by the Korea University Outreach Center for Korean Linguistic, Literary, and Cultural Studies. It will be a course that gives an overview of the landscape of Korean Sinographic poetry in various parts of the country.

What do you think of when you hear the term 'Sinographic poetry'? In the East Asian Sinographic world, Sinographic poetry was a universally accepted form of literature. It's also a very important part of Korean literary history. For the educated literati, the ability to compose Sinographic poetry was considered a basic skill. Everything from personal records of daily life to matters of state diplomacy were communicated through Sinographic poetry. However, to us today, Sinographic poetry seems very unfamiliar and difficult. Not only was it written according to strict rules, but it also implicitly quoted various references from old texts. It was written in a poetic tradition that we don't know much about today. Because of this, many people who are interested in traditional Korean literature and art may want to learn more about the genre, but may not know where to start.

"A Journey through Korean Sinographic Poetry" is designed for people like this. In this course, lecturers will explain the flow of Korean Sinographic poetry in the regional context where major events in Korean society took place. By this, you will be able to understand the history of Korean Sinographic poetry

in a historical and spatial context. By learning the major events of Korean society, the places where they took place, and the people involved in those events. I hope that you will be able to experience the seemingly difficult Korean poetry as a product of history and reality.

To summarize the learning objectives of this course, I would like to present the following. First, to understand the spatial and temporal background of Korean Sinographic poetry. Second, to understand the main trends and currents of Korean Sinographic poetry. Third, to learn and appreciate the major poets and works of Korean Sinographic poetry. If you are a beginner or intermediate level student interested in the history of Korean classical poetry I think you will enjoy this course. However, due to the nature of the classical literature, you may find it a bit challenging as there are many unfamiliar Sinographic words. If you are familiar with Chinese or Japanese Sinographic poetry, you may want to explore the universality and specificity of Korean Sinographic poetry in the broader context of East Asia.

The course will be taught by five lecturers, including myself. Let me introduce them one by one. I'm Noh Johann from Korea University Institute for Sinographic Literatures and Philology. I'd like to introduce the course and give you an overview of it. I will also guide you through the basic elements and concepts of Korean Sinographic poetry. Specifically, we will look at the brief history, styles, and writers of Korean Sinographic poetry. In addition, we will explore the major historical and cultural spaces of Kaegyŏng under the theme of "Kaegyŏng, the Capital of Koryŏ and Sinographic Poetry." While traveling together, let us read poems created in that place together to explore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the capital city of the Koryŏ Dynasty.

Dr. Chung Younggun, a senior researcher from the BrainKorea21 Center in th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at Kangwon National University, will tell us about Sinographic poetry in Kangwŏn and Chŏlla provinces. Through the topic of "Kangwŏn Province in Early Chosŏn," we will learn about the tragic fate of King Tanjong. We will learn about Kim Si-sŭp, who is said to be one of the six living loyalists of King Tanjong, and Ch'ŏngp'yŏngsa Temple, a famous place in Ch'unch'ŏn, and poetry related to it. You

will also learn about Yi I, a famous literary figure from Kangwŏn Province, and his mother, Sin Saimdang, as well as the stories of the siblings Hŏ Kyun and Hŏ Nansŏrhŏn. "Sinographic Poetry of Chŏlla Province : Exile, War, and Sirhak" will introduce you to the life and poetry of the mid-Chosŏn Honam literati including Cho Kwang-jo. We will also look at the devastation Chŏlla Province suffered during the Imjin War and the life of Yu Hyŏng-wŏn, a Sirhak scholar.

Dr. Kim Gi Yeop, an invited research professor at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Institute of Younghan Culture Research, will tell us about Sinographic poetry of Kyŏngsang and Ch'ungch'ŏng provinces. Under the theme of "Confucian Culture in Kyŏngsang Province and the Sinographic Poetry of T'oegye School", he will talk about the unique literati culture and educational space of Sŏwŏn, as well as the story of T'oegye Yi Hwang and his disciples with Sinographic poetry. In addition, under the theme of "Ch'ungch'ŏng province, and the Yulgok School," he will talk about Yulgok Yi I, a scholar who represented Chosŏn along with Yi Hwang, his disciples, and their exchanges through Sinographic poetry.

Next, Dr. Oh Bo-ra, a lecturer from the Department of Classical Chinese at Korea University will tell us about Sinographic poetry related to Hanyang. She will begin with the topic, "Sinographic Poetry of the Paekak Society and yŏhang-in (commoners) in 18th Century Hanyang." In the bustling culture of Hanyang. Paekak Society, which gathered the best writers of the time, and the poetry group of yŏhang-in, commonly called the middle class, engaged in poetry societies and left various poetry. Under the topic "The city life of Hanyang and the Paektap School – Sinographic Poetry of Sin Wi" she will explore the culture of Hanyang intellectuals in the late 18th and early 19th centuries. In particular, she will focus on the writers of Paektap centered on Pak Chi-wŏn, and the works of Sin Wi, who excelled in poetry, writing, and painting. And we will study the scenery of Hanyang represented in late Chosŏn Sinographic poetry.

Dr. Lee Nammyon, a researcher from the Korea University Institute for Sinographic Literatures and Philology, will talk about Sinographic poetry related to Mt. Kŭmgang and diplomacy. In the topic of "Kŭmgang Travel and Travel

Poetry,” we will look at the popularity of traveling to Kūmgang in the late Chosŏn period, and the travel poetry and landscape paintings left by the literati who traveled there. In "In the Wider World," we will explore the ways in which Chosŏn writers who were diplomats communicated with people from China, Japan, Vietnam, Okinawa, and Thailand through poetry, and the way they understood foreign states.

In this way, we will explore the history and poetry of different parts of the country and how they interacted with the outside world. Our journey through Korean history and poetry now begins.

2차시 이룬 시기의 한국 한시

Hello, everyone. I'm Noh Johann from Korea University Institute for Sinographic Literatures and Philology. Today, we're going to learn about the first phase of Korean Sinographic poetry in the early days.

First, let's talk a little bit about the term Sinographic poetry. Actually, Sinographic poetry (Hanshi) used to be called just "shi" (poetry; 詩). Nowadays when we say "poet," we think of a modern poet, and when we say "poetry book," we think of a collection of poems by modern poets. In the old days, a poet was a poet who wrote Sinographic poetry. A poetry book was a collection of Sinographic poems. After the 20th century, modern poetry written in contemporary Korean began to be called poetry, and the poetry of the traditional era came to be referred to as Sinographic poetry. For the sake of simplicity, we'll refer to poems from the traditional era written in Hanja (classical Chinese characters) collectively as Sinographic poetry.

So, when did people start writing Sinographic poetry in Korea? Yu Dŭk-kong, a scholar from late Chosŏn, wrote a piece called "The Origin of Korean Poetry" in a work entitled <Kowuntang philki>. Here, Yu Dŭk-kong listed 20 works ranging from the earliest Korean poem written by the sage Jizi from Old Chosŏn entitled to <Maeksuga> (麥秀歌) to <Chŏryŏngma toch'am> written by Kyŏn Hwŏn of Later Baekche. At the end of the article, he says, "This is the origin of Korean poetry. If I were to compile a collection of Korean poetry, I would have to put these poems first."

The modern narrative of history of Korean literature often attributes the beginnings of ancient Korean poetry to <Konghuin> (箜篌引) written by Yo Ok, the wife of Kwangnijago who was a Chosŏnjin worker, or <Hwangjoga> (黃鳥歌) by King Uri of Koguryŏ. <Konghuin> is better known to us by the title of <Kongmudohaga> (公無渡河歌). Let's take a look at <Konghuin> first.

"Don't cross the river, my love.
My love eventually crossed the river.
Now that my love is drowned,
There's nothing that I can do."

〈Konghuin〉 was collected in a book called 〈Gujinzhu〉 (古今注) compiled by Cui Bao of the Jin China along with its background folklore. Here's what it says.

“〈Konghuin〉 (箜篌引) was written by Yo Ok, the wife of Kwangnijago who was a Chosŏnjin worker. Kwangnijago woke up early in the morning and was rowing his boat when a gray-haired madman holding a bottle of alcohol untied his hair and jumped into the river in order to cross it. His wife followed him and cried out to him, but she could not catch him, and at last he was drowned in the river. Then his wife took the konghou (harp) and sang the song of “Kongmudoha” (“Don't cross the river, my love...”) The sound was very pitiful and mournful, and when she had finished, she threw herself into the river and committed suicide. When Kwangnijago saw this, he returned and told his wife, Yo Ok, of the pitiful and sorrowful sound. Being deeply saddened, Yo Ok took up the konghou and recreated that sound, causing all who heard it to be moved to tears. Eventually, she taught the song to her neighbor, a woman called Yo Yong, and named it 〈Konghuin〉.”

Now, let's turn to 〈Hwangjoga〉 (黃鳥歌) written by King Uri of Koguryŏ.

“Those fluttering birds,
male and female.
are in love with each other,
but with whom will my lonely body return?”

King Uri's "Hwangjoga" is recorded in the annals of Koguryŏ, the <Samguk Sagi>. The record is as follows:

"In the third year of King Uri's reign, in the winter of October, his queen, Lady Song, passed away. The king married two more women, making them his subsequent wives. One was called Hwa-hŭi, the daughter of a man from Kolch'ŏn. The other was called Ch'i-hŭi, the daughter of a man from Han. The two women vied for the king's affection, and because they didn't get along with each other, the king built two palaces in Yanggok, one to the east and the other to the west, and placed each of them in their respective palaces. One day, while the king went hunting in Kisan for seven days, the two women quarreled. Hwa-hŭi rebuked Ch'i-hŭi, saying 'You are a lowly concubine from Han; how can you be so insolent?' Ch'i-hŭi was humiliated and embarrassed, so she ran away to her natal home. When the king heard the news, he whipped his horse and chased after her, but she was furious and did not return. When the king was resting under a tree, he saw the nightingales flying in and gathering around him. He marveled at this and sang as follows. 'Those fluttering birds, male and female, are in love with each other, but with whom will my lonely body return?'"

Lastly, I'd like to end today's class by reading a work called <Insam ch'an>, which is said to have been written by an anonymous Koguryŏ poet. <Insam ch'an> means something like a paean to ginseng. Korean ginseng is famous even today, but I think it was also very famous in the Koguryŏ period. <Insam ch'an> was compiled in the <Mingyi bielu> (名醫別錄) by Tao Hongjing of the 6th century Liang Dynasty. Let's read the poem together.

"Five leaves on a three-pronged stem,
I grow in shadow avoiding the sun.
If you want to find me,
look under the linden tree."

Ginseng over 10 years old is said to have three stems and five leaves. This poem is interesting because the speaker is ginseng, so it's almost like the ginseng is singing about itself saying "Find me if you can." You may notice that this poem is in Shijing style with four-syllable lines. The last syllable of the second stanza is "ŭm" (陰) and the last one of the fourth stanza is "sim" (尋) so both "ŭm" and "sim" have the final sound 'm'. You can see that, just like the two poems before this one, rhyming syllables are put on the second and fourth lines, the even lines.

3차시 삼국시대의 한국 한시

Hello, everyone. I'm Noh Johann from the Korea University Institute for Sinographic Literatures and Philology. We'll learn about Korean Sinographic poetry in the Three Kingdoms era.

The first poem we're going to read is 〈Yǒng Gosǒng〉 (詠孤石), written by a monk from Koguryŏ named Chǒng-pǒpsa (定法師). The title means "Ode to the Long Stone." Let's read the poem together.

"High rocks tower in the air,
and calm lakes spill out in all directions.
The roots of the rocks are always rippling,
and the branches are always swaying.
The rocks always cast their shadows on the water,
and the sunset makes them redder.
It towers above all the peaks and stands,
out alone in the white clouds."

This poem is included in a collection titled 〈Chuxueji〉 (初學記) edited by Xu Jian (徐堅) from the Tang Dynasty.

It says "Chin'goryŏjǒngbōpsayōnggosŏkshi" (陳高驪定法師詠孤石詩) which means "The poem of Yǒng Gosǒng written by Chǒng-pǒpsa from Koryŏ during the Chen era." We don't know the exact date of Chǒng-pǒpsa's life, but according to this description from the 〈Chuxueji〉, as the Chen Dynasty of Southern China corresponds to the years 557 to 589, Chǒng-pǒpsa would have been living during this period. In other words, he was a monk from Koryŏ, or Koguryŏ, who lived around the middle of the 6th century.

In the first phrase, “hyöngsöng” (迴石) refers to a rock that rises high in the sky, and “jik” (直) means "straight". “saenggong” (生空) means created in the air. You can imagine a very steep rock rising straight up into the sky. But in the second phrase, this rock is on a flat lake, so it juts out in all directions. It's in the middle of a flat lake, so it's going to look even taller.

Let's continue with the next phrase. The roots of the rock, “amoe” (嵒隈), are always lapping at the surface of the lake. And the “such'o” (樹杪), that is, the tips of the trees on the rocks, are always swaying in the wind. Interestingly, even though the poem describes the lake's waves crashing against the rocks and the constant wind blowing over the rocks, what the poem is really saying is that despite these waters and winds, this rock has been standing firmly in its place for who knows how long.

Let's look at the next lines. In the next stanza, the poem describes the beauty of the rocks. The word “öllyu” (優流) refers to lying on the water of a lake, but it's not the rock that's lying there, it's the rock's shadow. “Chiyöng” (漬影) means that the water in the lake is soaking the shadow. Can you picture the shadow of a rock lying in the clear water? “Ch'imha” (侵霞) means to invade the sunset, and as the sunset deepens, this rock rises into the sky. The idea is that it blends in with the red sunset in the sky and becomes redder than the sunset. The last phrase says that this rock is so much higher than many other rocks around it that it stands alone in the white clouds.

This poem describes the rock in poetic terms. This type of poem is called “yongwushi” (詠物詩) which means poetry about things. In many cases, the works of poetry about things are actually making metaphors. It's about an object, but you're putting a different meaning on it. This poem is about a lone rock that is much higher than the other rocks, never sways in the waves and wind, that casts shadows in the water and reddens in the evening sunset. But what the poem is trying to convey is the poet's cultivation of mind, which is likened to a steadfast high rock, or the virtuous and unwavering spirit of a zen master.

The next poem was written by Ŭlchi Mundök in 612, the 23rd year of King

Yōngyang of Koguryō. It's titled <To Yu Zhongwen, the great general of Right Assisting Guard of Sui>. Let's read it together.

“Your divine plans have plumbed the heavens;
Your subtle reckoning has spanned the earth.
You win every battle, your military merit is great,
Why then not be content and stop the war?”

In 612, when the Sui general Yu Zhongwen defeated Koguryō and reached the Yalu River, it is said that the Koguryō general Ŭlchi Mundōk falsely surrendered and entered Yu Zhongwen's camp. General Yu had his own secret order from Emperor Yang “To seize Koguryō King Kowōn (Yōngyangwang) or Ŭlchi Mundōk if they should fall into hands.” However, the assistant director of the Right of the Department of State Affairs, Liu Shilong (劉士龍), convinced the general not to arrest Ŭlchi Mundōk and let him go. Yu Zhongwen later regretted his decision and sent a message that he “wished to discuss things further” but Ŭlchi Mundōk did not comply. After Ŭlchi Mundōk crossed the Yalu River to go back to Koguryō, Yu Zhongwen recruited horsemen and chased him across the Yalu River, defeating Koguryō in every battle. At that moment, Ŭlchi Mundōk sent him the above poem for the occasion. This is because, as is well known, Yu Zhongwen was fooled by the trickery of Ŭlchi Mundōk, leading to the crushing defeat of the Sui army in Salsu.

In the first part of the poem, Yu Zhongwen is praised for his brilliant strategy and plans, but then warns him that he's had enough and to go home. In fact, it's the latter half of the poem that contains Ŭlchi Mundōk's message. If you look at the war at Salsu, the one who did all the tricks and plans was not Yu Zhongwen, but Ŭlchi Mundōk himself.

The next work of poetry is <T'aep'yōng-song> (太平頌) written by Queen Chindōk of Silla in 650. You can see the word “song” (頌) in the title. “Song” means ode. So it's kind of like an ode that praises t'aep'yōng (the age of peace). <T'aep'yōng-song> is a song in praise of the age of peace during the

Tang Dynasty. According to the 〈Samguk Sagi〉, in the 4th year of Queen Chindök, 650, the queen wove silk woven and composed the 〈T'aep'yöng-song〉 with five-syllable lines. Then she dispatched Pömmín, the son of Kim Ch'un-ch'u, to present it to the Tang emperor. Let's read the poem together.

“The great Tang opened,
the way for the emperor, and his plan still thrives.
He pacified the world, bringing an end to wars,
and cultivated virtues that surpassed a hundred kings.
He ruled the world with grace,
and governed all things with his beautiful qualities.
His virtues were in harmony with the real world,
and he always strove for peace.
How brightly the flag shines,
how majestic the gong and drum sound.
The barbarians of foreign lands, who disobeyed orders,
were destroyed by the plagues of heaven.
When the purity of the air fills the whole universe,
all countries excitedly show their respect.
The weather in the four seasons is as smooth as a candle,
The sun, the moon, and stars travel all over the sky.
The mountain spirits bestow their favored ministers,
and the emperor chooses those who are loyal and faithful.
Like the Three Sovereigns and Five Emperors,
The Tang Dynasty will shine forever.”

The overall tone of the poem is praising the Tang dynasty and its emperor. For reference, the poem was originally written in a palindrome (回文) style, modeled after the 〈Suruolan zhijintu〉 (蘇若蘭 織錦圖), but the poem we read from the 〈Samguk Sagi〉 is narrated in a generic way, so we don't know what it originally looked like. You can also see that the rhymes are ‘chang’ (昌),

‘wang’ (王), ‘zhang’ (章), ‘kang’ (康), ‘huang’ (煌), ‘yang’ (殃), ‘xiang’ (祥), ‘fang’ (方), ‘liang’ (良), and ‘huang’ (皇) in even-numbered lines. A poem like the one above is called “O-Ŏn changp’yŏn” because it has 5 syllables per line (O-Ŏn) and is long (changp’yŏn). A poem that uses a single rhyme scheme without changing from beginning to end is called “lrundojŏ.” (C. yiyundaodi; 一韻到底)

So far, we've looked at three poems. <Yŏng Gosŏng> (詠孤石), written by Chŏng-pŏpsa, <To Yu Zhongwen, the great general of Right Assisting Guard of Sui> by Ŭlchi Mundŏk, and <T'aep'yŏng-song> (太平頌) by Queen Chindŏk. Have you noticed any similarities between these three poems? Yes. They're all different lengths, but they all have five syllables per line. This type of poem is called O-Ŏn-si. Those with seven-syllable lines are called Ch'il-Ŏn-si. It's safe to say that five- and seven-character stanzas are the most common forms in a poem. By the way, the three poems above are all in the style of “Gushi” (古詩) which means old style poetry. Lastly, I'd like to end this lesson with a poem written by a Chinese poet named Jia Dao along with a Silla envoy. There is an anecdote that Jia Dao composed a lianju (聯句) with an envoy from Silla in a book called <Yaoshantangwaiji> (堯山堂外紀) compiled by Jiang Yikui during the Ming Dynasty. Lianju (聯句) is a poem that a person or group of people write one or several stanzas each to complete. It is said to have originated with the Han Dynasty's Bai Liang Poem, which was written by Emperor Wu with several subjects. The poem is as follows. Here's a stanza written by the one from Silla.

“The waterfowl rise and sink again,
 The mountain clouds break and join again.”

Jia Dao continues,

“The oar pierces the moon under the waves,
 and the ship presses the sky beneath the water.”

According to 〈Yaoshantangwaiji〉 (堯山堂外紀), a Koryŏ emissary wrote the line while passing through the sea. Jia Dao pretended to be a boatman and continued the following line. So the Koryŏ emissary admired it for a long time and never spoke of the poem again. Chibong Yi Su-gwang, a scholar from the middle Chosŏn, said, "It is said that the Koryŏ emissary was Ch'oe Ch'ung-hŏn." We don't know if this is true. However, we can assume that Koryŏ is referring to Silla here. Which line do you think is better?

4차시 한국 한시의 여러 양식: 근체시

Hello, everyone. I'm Noh Johann from the Korea University Institute for Sinographic Literatures and Philology. Today, we'll learn about the different styles of Korean Sinographic poetry.

Like other literary genres, Sinographic poetry can be categorized into several different styles. However, there are many ways to categorize them depending on what criteria you apply. You can categorize them by subject matter or content, or you can categorize them by poetic form. First of all, if you look at it by subject matter or content, there are yonghuaishi (詠懷詩) that expresses personal feelings or thoughts, yongshishi (詠史詩) that sings about history, yongwushi (詠物詩) which sings about objects, shanshuishi (山水詩) which sings about nature beauty, shehuishi (社會詩) which talks about social issues, jisushi (紀俗詩) which documents contemporary customs, huairenshi (懷人詩) which was written in memory of friends or the deceased, aidaoshi (哀悼詩) which mourns the death of others, yuyanshi (寓言詩) which convey thoughts and feelings by likening them to fictional characters or objects, chelishi (哲理詩) which convey philosophical ideas, tihuashi (題畫詩) which explains the meaning of a painting or appreciation, duhoushi (讀後詩) which are written after reading a book, and zhengdashi (贈答詩) which were correspondence poetry with family, friends, and acquaintances. In short, poetry can be based on anything in life.

However, rather than categorizing a poem by its subject matter or content like this, it's easier to understand if we categorize them based on their form. The Chinese scholar Wang Li, in a book called <Zhongguo shilüxue> (漢語詩律學), categorized Chinese poetry into four main categories: modern style (近體), old style (古體), ci (詞), and qu (曲). Among them, modern and old styles can be said to be the two most important formations of Sinographic poetry.

Chinese qu (曲) were called yuanqu (原曲) and were very popular during the Yuan Dynasty, but it didn't have much influence in Korea. However, ci (詞) was recognized as a major style of Sinographic poetry also in Korea, and there are also several good works, so I think it would be good to treat it as one of the main types of Korean Sinographic poetry.

The two main formations of poetry, modern and old, are further divided into sub-forms by the number of syllables, regularity of the length of each line, and the way of using rhymes and tones. Rhyme refers to the placement of phonetically identical characters at the end of a phrase. Tone is placing characters at different pitch levels depending on their position within a phrase. Rhyme was called yayun (押韻), while tone was called pingze (平仄). So, depending on which form of poetry you choose, the spirit of your poem can take on a different look. In other words, poets decide the style of a poem according to the theme or what they wanted to say in the poem. Some of the best Sinographic poets favored a particular form and made it their own.

Going back to the beginning, there are two main styles of Sinographic poetry. One is a form of poetry that is not bound by the number of lines or rhyme scheme, called gushi (古詩) or old-style poetry. The other is a form of poetry that has a fixed number of lines and a rhyme scheme, which is called formal verse or modern-style poetry. Let's go a little deeper here.

There are two main types of modern style poetry. One is lüshi (律詩) that consists of 8 lines and arranges antithetical couplets (duizhang; 對仗) in the middle. The other is jueju (絕句), that is four lines long, which is half the length of lüshi. Lüshi also has two types: one with five-syllable lines and one with seven-syllable lines. The first stanza is called “shou lian” (首聯), the second “han lian” (頷聯), the third “jing lian” (頸聯), the last “wei lian” (尾聯). “Shou” in “shou lian” (首聯) means head, and “han” from “han lian” (頷聯) means chin. “Jing” from “jing lian” (頸聯) means neck, and “wei” from “wei lian” (尾聯) means tail. You can see that the stanzas are named in order from head to tail. If you add two more syllables to the beginning of each stanza in the five-syllable-line poetry, it becomes seven-syllable-line poetry. In both styles, the second and the fourth stanzas should be antithetical couplets.

Next, old-style poetry is a branch of Sinographic poetry that contrasts with the modern style. It ranges from the ancient folk songs to yuefu (樂府) composed in Han to Northern and Southern dynasties, encompassing all poems that don't follow the standards of modern-style poetry. After the establishment of modern-style poetry, the older poetry styles were grouped together and called gushi or old style poetry.

Old-style poetry is divided by the number of characters of each stanza, namely, into four, five, and seven-syllable line poetry, and arrhythmic verses including changduanju (長短句) and yuefu. In terms of length, there are long and short poems. Long ones usually have more than 10 lines. Among the various types of old-style poetry, four-syllable-line verse and yuefu are usually regarded as independent genres, so five and seven-syllable-line poetry are the major types of old-style poetry. Each can be written in long or short form. You can find it in the table. So let's start with the simplest type, the five-syllable line quatrain.

Let's read a poem called 〈Writing on the Pillars of Töksan Kyejŏng〉 written by Cho Sik.

“A thousand-pound bell,
has no sound unless struck hard enough.
But how can it be compared to Duryu Mountain,
that never cries even when the sky does?”

A huge bell that weighs a thousand pounds won't make a sound unless it's struck hard enough. The bigger the bell, the harder it has to be struck. However, the poet says that huge bell isn't comparable to Duryu Mountain, or Chirisan, that never cries even when the sky does, because it has a strong inner strength. We can see the poet's determination to become like Chirisan. As an example of a seven-syllable line quatrain, let's turn to a poem called 〈Looking at the Mountains After the Rain〉 written by Hwadam Sŏ Kyŏng-dŏk from the mid-Chosŏn period.

“When I stand up on the pavilion and open the drapes,
the mountain light is so fresh after the rain has stopped.
Even the best painters wouldn’t be able to capture the green,
green peaks that are revealed when the clouds clear.”

“Revealed” (lo; 露) in the last stanza is the keyword of the poem. The mountain peak that reveals its green and pointed appearance after the clouds clear symbolizes the truth that is about to be revealed to one's self. The poet was able to describe such clear scenery because even though he was deeply immersed in it, he possessed a pure spiritual world. Furthermore, because his spiritual activity was dynamic, he was able to capture and express the appearance of a still mountain, as well as the movement of the surrounding scenery. Let's end this session with a five-syllable-line octave.

This is a poem titled <Accidental Recitation> by Maewöltang Kim Si-sŭp, one of the six living loyalists of King Tanjong, also known as Ose (五歲),

“I love pine, bamboo, and chrysanthemum the most,
For I keep the oath of sehan (c. suihan; 歲寒).
I weave a low fence with thorns,
and cut down bushes to make a trail in the mountain recess.
Bokgeon is for the fashion outside,
and the goosefoot stick is for a leisurely hermit.
Leaving the world’s affairs behind,
I contemplate the history recorded in the classics.”

The oath of sehan refers to a mind that does not change even in times of trouble. In the <Analects> it says, "Only after the weather turns cold do pine and pine trees wither late." There are the words of Confucius, <Sehando> (歲寒圖) that Ch'usa Kim Chŏng-hŭi drew for his disciple Yi Sang-chŏk who never

forgot him when he was exiled on Jeju Island is also based on this passage from the <Analects>. Pine trees, bamboo, and chrysanthemums all symbolize fidelity and loyalty. Let's see the second couplet again.

"I weave a low fence with thorns
and cut down bushes to make a trail in the mountain recess."

In that order, "fence with thorns" and "cut down bushes," "Weave" and "make", "low fence" and "train in the mountain recess" make antithetical couplets. In the third line, "bokgeon" and "goosefoot stick," "outside" and "hermit," "fashion" and "leisurely" are all antithetical, in that order. We can say that the basic rules of five-syllable line octave, which is that the second and third couplets should be antithetical, is well observed. The two couplets are both about the life of a hermit, who lives a leisurely life.

In the last couplet, it says "Leaving the world's affairs behind, I contemplate the history recorded in classics." "Contemplate the history recorded in the classics" means to befriend the great people of one's time and if that's not enough, you should go back in time and befriend people from past. This is the concept known as called "shangyou" (尙友). This is where the phrase comes from <Mencius>: "If it is not enough to associate with great men in this world. I go back to the old days and discuss the people of the past. If we recite their poems and read their writings, but still do not know what kind of person they are, does it make sense?" That is why you discuss his life at that time. This means going back to the old days and befriending them." I can glimpse the straightforward determination of the poet buried deep in the mountains, living alone in solitude, reading scriptures alone, reflecting on the affairs of the past, befriending those above the heavens, regardless of the chaos of the world, who vows to steadfastly maintain his own integrity, like his beloved pine tree, bamboo, and chrysanthemum.

5차시 한국 한시의 여러 양식: 고체시, 악부, 사

Hello, everyone. I'm Noh Johann from the Korea University Institute for Sinographic Literatures and Philology. Today, we'll learn about the different styles of Korean poetry.

In terms of formation, there are four main types of Sinographic poetry: modern style (近體), old style (古體), ci (詞), and qu (曲). We're going to read and appreciate works of old-style Korean poetry, yuefu (樂府), and ci.

Let's start with a poem of five-syllable-line gushi. After the establishment of modern-style poetry, the older poetry styles were grouped together and called gushi or old style poetry.

Today we're reading a poem by Hyecho, a Silla monk, included in the *Wangoch'öñch'ukkukchön* (Memoir of the Pilgrimage to the Five Kingdoms of India). Hyecho recorded his observations while traveling to Buddhist holy places in *Wangoch'öñch'ukkukchön*, and interspersed it with five poems that expressed his thoughts. These poems are not only the first lyrical Korean poems in the history of Korean literature to be attributed to a known author, it is also a work that closely follows the rules of form. I said 'closely' because there are still quite a few parts that deviate from the rules of tone and rhyme even though it's written in *lüshi* style. In that sense, these poems of Hyecho can be seen as works that fall within the category of old style poetry. It's not until Ch'oe Ch'i-wön, a century later, that complete *lüshi* poetry appeared in the history of Korean literature. In *Wangoch'öñch'ukkukchön*, Hyecho describes the landscapes, customs, ways of life of India, and legends and folklore in prose style, and expressed his contemplation and solitude in poetry. First, let's read one of the poems that was written when he arrived in India and reached Varanasi in the midst of rejoicing that the wishes of his pilgrimage had been fulfilled.

"I'm not worried about the long way to Bodh Gaya,
nor the long way to Deer Park.
Though I'm worried about the rough road,
I don't worry about the fierce wind of karma.
It is indeed difficult to see the Eight Pagodas,
Burned to a crisp after so many years of suffering.
How could he reach nirvana?
I'll see it with my own eyes today."

Bodh Gaya (菩提伽耶, "Puda Kaya" in Korean) is the place where Buddha attained enlightenment under the Bodhi tree, Deer Park (鹿苑; Skt. ṛṣipatana, "Nokyawŏn" in Korean) is known as the place where Buddha gave his first sermon after enlightenment. From the beginning of the poem, we can see that the poet is excited and hopeful about his pilgrimage. the wind of karma (業風) means that the karma of a person's good deeds is like the wind, causing them to drift and reincarnate in the three worlds, or it could be a fierce wind caused by bad karma. In this case, it can refer to the strong winds he faced on the road. Or it could refer to the constant struggle between good and evil within himself. The eight pagodas are: Posalt'ap, Yŏn'gakt'ap, Arahant'ap, Anahamt'ap, Sadahamt'ap, Sudawŏnt'ap, Chŏllyunsŏngwangt'ap. Each of the eight pagodas is said to have been built after the passing of the eight saints. However, by the time Hyecho traveled, these pagodas had long since burned down. Reaching nirvana (願滿) means to fulfill one's wish to reach the spiritual realm, The poem concludes by expressing the joy of being able to see the traces of the Buddhist saints.

Next, let's take a look at a piece of yuefu. Originally, yuefu was the name of the government office that took charge of court music in the Han Dynasty. The word came to mean the songs that were played there, and the songs were also called yuefu. After the government office disappeared, it continued to exist for a long time as the name of a poetic genre. In Yuefu poetry, there are works with a regular five- or seven-syllable line forms, but there are also

many works with irregular form. In particular, from the late Yuan to the early Ming dynasties, the style of history of yuefu was established, and it had a certain influence on Chosŏn. The Ming Dynasty's Yang Weizhen composed poetry about historical facts and legends to compile the <Guyuefu> (古樂府). Li Dongyang, also from Ming China, wrote <Niguyuefu> (擬古樂府), a collection of historical yuefu, and under the influence of the latter, Sim Kwang-se's <Haedong akpu> was written in Chosŏn.

After Sim Kwang-se's <Haedong akpu>, scholar-writers who were generally politically disadvantaged left many works of Haedong akpu (yuefu on Korean history). In late Chosŏn, Sŏngho Yi Ik wrote 120 pieces of <Haedong akpu> on the theme of Korean history. Let's take a look at one of them.

A little background would be helpful. Because King Nulji of Silla wanted to see his brothers Bokho and Misahŭn, who were hostages in Koguryŏ and Japan, respectively, Pak Che-sang went to Koguryŏ and brought Bokho back, and right after that, he went straight to Japan and tried to bring Misahŭn back by pretending that he had betrayed Silla. A short time after Pak Che-sang secretly brought Misahŭn back home, he was captured and killed by the Japanese. Even after being tortured, he didn't change his loyalty to Silla. When the King of Silla heard the news, he posthumously promoted Pak Che-sang to the position of Taeach'an and made Misahŭn marry the second daughter of Pak Che-sang.

The poem is related to the story of the wife of Pak Che-sang. Yi Ik wrote a poem about Pak Che-sang and entitled it "Ushikkok." Separately, he also wrote a work called "Ch'isullyŏng" which is about the legend of how the Pak Che-sang's wife became the goddess of Ch'isullyŏng. Let's read the short preface and the poem of "Ch'isullyŏng."

"You can find the explanation above. When he went to Japan, Pak Che-sang vowed to die and didn't even meet his wife and family. When he came to Yuopo the anchor had already been lifted, and his wife came after him and cried. Pak Che-sang said, 'I have already accepted the royal commission. I am determined to die,' and he left

for Japan. Later, the wife of Pak took her two daughters and went up to Ch'isullyŏng, looking the land of Japan, crying until she died. Then she became the goddess of Ch'isullyŏng. There is still a shrine there today.

“Don't be a wife of a loyalist in this world.
The husband has left and achieved the virtue,
but the wife has no one to turn to.
When her husband went to the East Sea,
she wailed and her children cried,
but he shook them off and left.
He was burned to death and everything was settled.
The man died, and the prince returned.
Sad, sad, sad. Where can I go to plead?
I watch the morning sun from Ch'isullyŏng.
I see the morning sun coming, but not going.
My tears are blown away by the west wind.
As if the sea dragon is anxious for me,
the rain is heavy, and the clouds are dark.
You died to become an immortal whose virtue was
as tall as a green mountain.
Rare is the husband and wife who are both loyal and chaste.
To this day, in Shinmo-sa, it is as if the spirit quietly blows the
flag.”

Her husband's sacrifice brought peace of mind to the Silla royal family, but it also left her with no one to turn to. Yi Ik describes the wife's sorrow with a strong message not to be a wife that is loyalist in this world.

Now let's turn to a work of ci (詞), among various genres of Sinographic poetry. Ci is also called “shiyu” (詩餘). It emerged in the 9th century, at the end of the Tang dynasty, and became a popular form of verse throughout the following dynasties, from the Five Dynasties to the Song Dynasty. In Korea,

the first person to start composing ci in earnest was Yi Che-hyŏn in late Koryŏ. The <Ikchae nan'go> contains 15 series of 53 verses. Other literary figures such as Yi Gok, Jeongpo, Kwŏn Gŭn, and Kim Si-sŭp also wrote ci. In this lesson, we'll finish by reading one of ci work writte by Kim Si-sŭp.

Kim Si-sŭp left a total of 9 series of 9 verses of ci. Among the works of ci written by Kim Si-sŭp while traveling the middle eastern part of Korea in his fifties, I'd like to introduce to you one titled <Kangsŏngja> (江城子), written at Tongsan'gwan. "Kangsŏngja" is the name of cipai (詞牌). Think of cipai as the melody name of a ci. It is to this title that the poet puts appropriate lyrics.

"There's a lonely Tongsan'gwan on the beach, bordering the blue sea.

Leaning on the windy parapet, I see Mount Penglai and Yingzhou.

The blue waves extend into the distance, and a few seagulls fly lightly.

You and I are alike in our struggles in this world, but while you quarrel, I forget myself.

Casting a lonely shadow at a distant place from home, even though my hair is grey, my eyes are clear.

How strange it is that I've come to live in the lone and isolated pavilion.

When you meet Anqi Sheng, tell him my words

that I want to drink a thousand-day wine with him."

This piece is divided into first and second parts. In a modern sense, that would be verse one and verse two. In the first half, the poet talks about hiking Tongsan'gwan, going with the white gulls on the beach, and how he reached the point where he forgot about himself. The second part continues the first, but switches things up a bit and sings about the loneliness of being a wanderer. It describes the feeling of wandering the world endlessly, the loneliness deep in his innermost being, which cannot be shaken off like one's own shadow. The bondage of the world that you can't get rid of as long as

you're alive. It can be said that the work reflects the desire to achieve eternal freedom by throwing off the world while drinking the thousand-day wine with Anqi Sheng who is said to have become the Taoist immortal of Mount Penglai from Qin China.

6차시 한국 한시의 여러 작가층

Hello, everyone. I'm Noh Johann from the Korea University Institute for Sinographic Literatures and Philology. Today, we'll learn about the different groups of writers of Korean Sinographic poetry.

The same can be said for China and Japan, but the mainstream of writers of Sinographic poetry in the premodern period were literati male authors. They often wrote poems based on a specific style or meter of Chinese poetry.

In some ways, it was also necessary in terms of diplomacy to write poems using Chinese poetry as a pretext. For example, in 1450, in the 32nd year of King Sejong, after Ni Qian (倪謙), who was a Bandengjizhaoshi (頒登極詔使) shijiang (侍講), Ming court envoys sent to Chosŏn exchanged poems with Chosŏn officials. In Chosŏn, they compiled the poems created during this time and published them under the name <Hwanghwajip>. The customary publication of <Hwanghwajip> became an important part of diplomacy between the two countries, Books of <Hwanghwajip> were important sources as reference and preparation for poetry exchange both in Chosŏn and Ming.

However, what we can see from the poems collected in <Hwanghwajip> is a sense of fellowship between the Ming emissaries and the Chosŏn courtiers sharing the same culture. For example, let's take a look at a poem exchanged by a Chinese envoy and a Korean envoy at Sŏnggyun'gwan, which is included in the Kyŏnggo edition of the <Hwanghwajip>. First, let's read a poem by Ni Qian, titled <After visiting the Confucian shrine>.

"I went to Sŏnggyun'gwan at dawn and visited the shrine,
The altar was spread out on the south side of the green mountain.
I thought of Jizi and his Eight Lessons,
and admired Confucius, the ultimate teacher.
The distinguished officials were seated with joy,

the well-dressed Confucians lined up with pleasure.
How can the civilization be limited to the east?
The blessing of the emperor has now reached the whole world.”

At the end of the poem, he says that the teachings of the Ming emperor has spread throughout the world, not just across the sea to Chosŏn. It could be said that as a Ming emissary, he had a sense of superiority over Chosŏn. In Chosŏn, responding appropriately to the Ming emissary's poem became a matter of national diplomacy, not a personal one. Chosŏn also valued <Hwanghwajip> as a device to show the level of civilization of the state. However, they had to rely mostly on references from Chinese literature to communicate with the Chinese literati. Therefore, it was one of the responsibilities of Chosŏn writers to express a unique and independent view of civilization while utilizing Chinese poetry as a tool.

Let's take a look at Chŏng In-ji's poem, which is a response to the above poem by Ni Qian.

“After visiting the shrine, he went to the auditorium,
His behavior and conversation are as warm as the spring sun.
The wind-and-cloud-like spirit pierces the sky,
and the eloquent sentences serve the emperor.
His poetry gained the essence of Du Fu,
and his calligraphy is comparable to Wang Xizhi.
It is truly a stroke of fortune bestowed upon me by the heavens to
receive you as a guest.
It is only my own lack of talent that makes me feel ashamed and
embarrassed.”

Ni Qian praised the harmony of the Sŏnggyun'gwan system and its people, influenced by the teachings of the Ming Dynasty's emperor that reached as far as Chosŏn. In response, Chŏng In-ji praises Ni Qian's outstanding character,

prose, and calligraphy while expressing embarrassment about his own lack of skill. However, this is only an expression of modesty, as he hopes to win the favor of the Ming courtiers through this poem, and show his literary ability at the same time.

Speaking of diplomatic poetry, let's take a look at the diplomatic poetry of the Parhae ambassador. The poems of the Balhae envoys are not found in Korean literature; they are mostly transmitted through Japanese literature. Here's a poem written in Japan by Wang Hyo-ryŏm, the Parhae ambassador, titled <On a spring day, I got a pavilion in the rain>.

"The master gives a banquet around the government office,
and the guests are so drunk that it feels like they are in the capital.
Perhaps the god of rain knows the king's will,
drenching the wanderer's heart with sweet and fragrant rain."

The "capital" in the second stanza refers to the capital of Balhae, Yongch'ŏnbo. It refers to being extremely drunk at a banquet, just like they did at Yongch'ŏnbo, the capital of Balhae. Or it could mean that it reminds him of the time when they were drunk at a banquet at their home even though they were in a foreign country. It means that he was enjoying the banquet in a foreign country to that extent. Also, the fragrant spring rain falls pleasantly because the god of rain, who makes the rain fall, understands his thoughts. This can be a praise for the virtues of the head of the partner state by comparing them to the gentle heart that brings down fragrant spring rain.

In Korea, as in China and Japan, literature was not exclusively the preserve of the male literati. In Korea, Buddhist monks, middle class, illegitimate descendents of yangban, and women writers established a different style of literature than that of male literati. Among them, middle class and clerk and petty officials, who were responsible for functional duties and lower-level administrative tasks in the Chosŏn rule system,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commoners' literature. As commerce developed, Seoul began

to take on the appearance of a modern city. The commoners of the capital developed their own literary taste and individually and collectively developed their own literature. These commoner poets collected their own poems and published them as 〈Yukka jabyŏng〉, 〈Haedong yuju〉, 〈Sodae p'ungyu〉, 〈P'ungyo soksŏn〉, and 〈P'ungyo samsŏn〉. In 1917, when it was time to publish 〈P'ungyo sasun〉. They published the grand collection of Korean Sinography titled 〈Taedongshisŏn〉, and gallantly arranged poetry of commoners in it. Let's take a look at a poem called 〈At the beginning of Sodae p'ungyu〉 which was written as a preface to 〈Sodae p'ungyu〉 by Ko Si-ŏn, a translator from late Chosŏn.

“It would make a pair with 〈Tongmunsŏn〉 showing the cultural excellency of the time, which makes it worth appreciating.

The distinctions of the social status are man-made, but the good songs lent by the heavens are the same without birth.”

He says that even though the difference in status between the nobles and commoners is unavoidable, but since poetry is given by the heavens, good poetry has the same resonance regardless of social class. Therefore, in saying that this 〈Sodae p'ungyu〉 can be paired with 〈Tongmunsŏn〉, which is a compilation of representative writings of the Korean literati, he is boldly expressing his literary pride as a commoner.

This time, let's take a look at a monk's poem. Let's read a poem titled 〈Hanjungjabyŏng〉 (閑中雜詠), written by a zen master Wŏn'gamguksa Ch'ungji of late Koryŏ. 〈Hanjungjabyŏng〉 refers to a poem written during a leisurely time, without a theme.

“Opening the blind to let the mountain lights in.
Connecting bamboo to listen to the sound of stream.
There are few guests in the morning,
and the little cuckoo calls its own name.”

The poet lives alone in a hermitage very deep in the mountains. When he wakes up in the morning and opens the blind, he invites the distant mountains into his room as if they were his friends. He carries bamboo barrels of water into the courtyard and listens to the cold, clear sound of the stream. He says that no one comes to the hut all morning, only the occasional sound of a bird. He's representing the so-called unspeakable world of zen in the language of poetry.

Let's take a look at some poems by women writers. Women's Sinographic poetry developed a particular direction of 'sincere expression of feelings' but some of the literati women of Chosŏn wrote the ideology of orthodox Confucianism in their poetry. Examples include Im Yunji-dang and Kang Chŏngil-tang, who were born into 'giho sŏin' (Westerner) families.

Im Yunji-dang said, "Although I am a woman,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men and women in the nature given by heaven." Kang Chŏngil-tang said, "Even women can reach the level of sages if they have great practice and achievements." As female scholars, they stood proudly at the center of their scholarship and discovered human subjectivity on their own. An example of this is Kang Chŏngiltang's poem titled <Plucking Grass in the Garden>. So let's end our session with this final poem.

"A cool shower dampens the dust as I pull up the dense weeds with my little hoe.

Though I'm ashamed of opposing the teaching of Zhou Dunyi, I reopen the old path in front of the mountain hut."

Clearing the weeds with a hoe and the cool showers dampening the dust all symbolizes the cultivation of oneself, cleansing one's mind to make it spotless. There's an anecdote about Zhou Dunyi, the Northern Song scholar, that he didn't cut the grass in front of his window to feel the life force of nature as it is. Kang Chŏngil-tang said she rebuilt the old path in front of the mountain

hut, even though she was ashamed of Zhou Dunyi's teaching. She is saying that she pursues the life of the old hermit who opened the garden of the hermitage. It was none other than a woman in Chosŏn who expressed the will to seek truth and cultivate herself.

讲义

1차시 <한국한시기행> 강좌 소개

大家好,我是高丽大学汉字汉文研究所的鲁耀翰,很高兴见到大家.该讲座是由高丽大学韩国语言文化学术传播研究所企划并制作的‘韩国汉诗纪行’系列讲座.本讲座将考察以全国各地为背景的我国汉诗的风采.

说到‘汉诗’,大家会想到什么呢?在使用汉文的东亚地区,汉诗是一种普遍通用的文学体裁.在韩国的文学史上,汉诗也占有很高的比重.对于积累了汉文修养的知识分子来说,汉诗的创作能力被认为是基本素养.从个人日常生活的记录到国家外交问题,都是通过汉诗实现的.而对于今天的我们来说,却对汉诗感到非常陌生和难懂.因为汉诗不仅按照严格的规则写成,而且含蓄地引用各种典故,是以我们今天不熟悉的诗歌传统创作的作品.因此,对韩国传统文学和艺术感兴趣的同学,虽然想要了解汉诗,但不知道应该从哪里开始学习的情况也很多.‘韩国汉诗纪行’正是为这部分同学准备的讲座.

该讲座将对以韩国社会主要事件发生地为背景的韩国汉诗的进程进行说明.希望通过该讲座,大家能够在历史性、空间性的内容中,更加立体地理解韩国汉诗的历史.希望大家一起考察韩国社会的重大事件及其发生场所,以及与该事件相关的人物,并且可以生动地感受到将看似晦涩的汉诗实为历史与现实的产物.

该讲座的学习目标整理如下.第一,理解韩国汉诗创作的时空背景.第二,理解韩国汉诗的主要倾向及趋势.第三,学习和欣赏韩国汉诗的主要诗人和作品.我认为,如果是对韩国汉诗的历史感兴趣的初级、中级水平的学生,可能会觉得该讲座很有趣.只是由于科目的特殊性,经常出现较难的汉字,所以可能会出现感觉稍有困难的情况.如果是熟悉中国或日本汉诗的同学,不妨从东亚这一更广阔的脉络中寻找韩国汉诗的普遍性和特殊性.

韩国汉诗纪行由包括我在内的五位老师进行授课.现在开始逐一向大家介绍一下.

首先,我是高丽大学汉字汉文研究所的鲁耀翰.将通过介绍‘韩国汉诗纪行’讲座,对该讲座的整体内容进行介绍,并为了帮助大家理解,将介绍韩国汉诗的基本内容.具体来说,将了解韩国汉诗的进程、形式和作家.并且将以‘高丽首都开城与汉诗’为主题,与大家一起游览开京的主要历史文化空间,阅读在此创作的汉诗,并探索高丽王朝首都开城所具有的历史

美.

江原大学国语国文系BK事业组首席研究员郑容建老师将介绍江原道和全罗道的汉诗. 将通过‘朝鲜前期的江原道’这一主题, 介绍端宗的悲剧命运, 生六臣之一的金时习, 以及围绕春川名胜清平寺的汉诗, 讲述江原地区的著名文人李珣与申师任堂母子, 许筠与许兰雪轩兄妹的故事. 在‘全罗道与汉诗: 流放、战乱和实学’中, 将介绍以代表朝鲜中期士林的赵光祖为首的湖南地区士林的生活和汉诗, 讲述壬辰倭乱当时全罗道所经历的惨状, 以及实学者柳馨远的人生.

担任庆北大学岭南文化研究院研究教授的金纪烨老师将介绍庆尚道和忠清道的汉诗. 将以‘庆尚道的儒教文化与退溪学派学者的汉诗’为主题, 讲述庆尚道特有的儒生文化和教育空间-书院, 以及关于退溪李滉及其弟子的内容. 并且将以‘忠清道和栗谷学派’为主题, 考察与退溪李滉一同代表朝鲜的儒学家栗谷李珣及其弟子, 以及他们通过汉诗进行的交流.

之后高丽大学汉文学系讲师吴宝拉老师将介绍有关汉阳的汉诗. 首先将以‘18世纪汉阳的白岳诗坛和闾巷人的汉诗’为主题, 介绍在繁华的汉阳文化中, 聚集当时最优秀的文人的白岳诗坛和经常被称为中人阶层的闾巷人的诗会及其作品. 并且将以‘都会汉阳的风景与白塔派-申纬的汉诗’为主题, 了解18世纪末到19世纪初汉阳知识分子的文化. 一起学习以朴趾源为中心的白塔派文人以及诗、书、画都很出色的申纬的汉诗作品, 并讲述汉诗中出现的朝鲜后期汉阳的风景.

高丽大学汉字汉文研究所研究员李南面老师将介绍有关金刚山和外交的汉诗. 将在‘金刚山游览与游览诗’的主题中, 考察朝鲜后期流行的金刚山游览和游览金刚山的文人留下的游览诗和真景山水画. 在‘更广阔的世界’的主题中, 将介绍主要作为外交官进行活动的朝鲜文人与中国、日本、越南、冲绳、泰国人进行交流的汉诗, 并考察朝鲜知识分子如何理解海外各国. 回顾全国各地的历史和汉诗, 了解与外部世界的交流, 以此来结束韩国汉诗纪行系列讲座. 邀请大家加入回顾我国历史和汉诗的旅游.

2차시 이른 시기의 한국 한시

本课时将学习一下韩国早期汉诗的最初形态. 首先讲一下所谓汉诗. 实际上, 汉诗以前只是被称为‘诗’. 我们一提到‘诗人’就会想到现代诗人, 一提到‘诗集’就会想到汇集某位现代诗人的诗歌而编成的诗集, 但在以前提到诗人, 说的是创作汉诗的诗人, 提到诗集, 说的是汇集汉诗编成的汉诗集. 20世纪之后, 开始将以韩文写成现代诗称为诗, 为了进行区分, 将传统时代的诗称为汉诗. 为了方便起见, 本讲座也将以汉字写成的传统时代的诗作统称为汉诗.

那么, 韩国从什么时候开始写汉诗的呢? 朝鲜后期学者柳得恭在名为《古芸堂笔记》的著述中留下了〈东诗缘起〉一文. 柳得恭列举了作为我国早期诗歌的古朝鲜箕子所吟唱的、〈麦秀歌〉直至后百济甄萱吟唱的〈绝影马谏〉等20多首作品, 在文章的最后写道: “此为东诗缘起. 编《大东诗纪》, 当以为首.” 事实上, 在柳得恭列举的作品中, 也包含了像〈麦秀歌〉一样, 让人怀疑能否称之为韩国汉诗的作品.

先来看一下箕子的〈麦秀歌〉, 然后再继续讲述.

“麦秀薿薿兮, 禾黍油油.
彼狡童兮, 不与我好兮.”

〈麦秀歌〉出自司马迁的《史记·宋微子世家》. 据说, 殷朝灭亡时, 箕子将洪范九畴传给周武王, 武王将朝鲜作为箕子的封地, 不再将其作为臣下. 此后, 箕子去周朝朝会, 途经故国殷朝的遗址, 看到宫室全部坍塌成为了废墟, 其上长满禾黍, 以悲痛之情吟唱了这首诗.

柳得恭将箕子的这首〈麦秀歌〉视为韩国汉诗之始, 从现在的观点来看, 可以说有些奇怪, 其理由首先是作者箕子出身于中国殷朝, 受周武王之命被封朝鲜, 而且此作品没有采用我们一般认为的1句5字或7字构成的汉诗形式. 但柳得恭将箕子的这一作品作为韩国汉诗的开端可以说是根据当时学者的普遍见解. 朝鲜时期的文人认为朝鲜的渊源来自檀君朝鲜和箕子朝鲜. 从箕子来到朝鲜将朝鲜建为文明之国的观点来看, 将箕子朝鲜同样视为本国历史的一部分.

另外, 关于汉诗, 即传统意义上的诗歌的代表性定义可以参考《诗经》毛诗序的如下章

节，一起来读一下。

“诗者，志之所之也。在心为志，发言为诗。情动于中而形于言，言之不足，故嗟叹之，嗟叹之不足，故咏歌之，咏歌之不足，故不知手之舞之，足之蹈之也。”

所以说，诗是心灵的表现，在心为志，发言为诗。如果如此宽泛地看待诗的范畴的话，那么可以说像箕子的《麦秀歌》一样的古代诗歌都包含在诗，即汉诗的范畴中。柳得恭继箕子的《麦秀歌》之后，还收录了箕子朝鲜的百姓们吟唱的《至德歌》。从金宗直的《青丘风雅》来看，“箕子既就封朝鲜，教民以礼乐，厥陋用化。百姓怀之，作至德歌以颂曰。”如下介绍了这首诗。一起来看一下。

“河水泼泼兮，曷维其极兮？

日月休光兮，维后之懿德兮。”

永不枯竭充盈流淌的河水和光芒灿烂的日月比喻的是箕子的美德。每句最后的‘兮’可以看作感叹词。

近代之后著述的韩国文学史一般认为，韩国古代诗歌的开端是朝鲜津吏霍里子高的妻子丽玉创作的《箜篌引》和高句丽琉璃王创作的《黄鸟歌》。对我们而言，《箜篌引》是以《公无渡河》为题而广为人知的作品。先来一起看一下《箜篌引》。

“公无渡河，公终渡河。公坠而死，将奈公何。”

《箜篌引》在中国晋朝崔豹编撰的《古今注》中与背景故事一同采录而流传至今。其内容如下：

“箜篌引者，朝鲜津卒霍里子高妻丽玉所作也。子高晨起刺船而櫂，有一白首狂夫，被发提壶，乱流而渡，其妻随唵止之，不及，遂堕河水死。于是援箜篌而鼓之，作公无渡河之歌。声甚凄怆，曲终自投河而死。霍里子高还，以其声语妻丽玉，玉伤之，乃引箜篌而写其声，闻者莫不堕泪饮泣焉。丽玉以其声传邻女丽容，名曰箜篌引焉。”

接下来一起看一下高句丽琉璃王所作的〈黄鸟歌〉。

“翩翩黄鸟，雌雄相依。念我之独，谁其与归。”

琉璃王的〈黄鸟歌〉被收录于《三国史记·高句丽本纪》而流传至今。其记录如下：

“琉璃王三年冬十月，王妃松氏薨。王更娶二女以继室。一曰禾姬，鹞川人之女也，一曰雉姬，汉人之女也。二女争宠不相和，王于京谷造东西二宫各置之。后王佃箕山，七日不返，二女争斗。禾姬骂雉姬曰，汝汉家婢妾，何无礼之甚乎？雉姬慙恨亡归。王闻之，策马追之，雉姬怒不还。王尝息树下，见黄鸟飞集，乃感而歌曰，翩翩黄鸟，雌雄相依。念我之独，谁其与归。”

最后读一下高句丽人所作的〈人参赞〉来结束本课时。所谓‘人参赞’是关于人参的赞歌。现在韩国也以人参而闻名，而似乎在高句丽时代人参也十分有名。〈人参赞〉被收录于6世纪梁人陶弘景编撰的《名医别录》中而流传至今。那么一起读一下这首诗。

“三椹五叶，背阳向阴。

欲来求我，横树相寻。”

据说，10年以上的人参有三椹五叶。这首诗十分有趣地将人参作为诗中话者，以人参歌咏自己的形式写成。写道：“欲来求我。”大家马上就会知道，这首诗1句4字，采用了诗经体。而且第二句最后的‘阴’(음)和第四句最后的‘寻’(심)，‘음’和‘심’的终声都是‘ㅁ’。由此可见，这首诗与前面两首诗一样，第二句和第四句，即偶数句中进行了押韵。

3차시 삼국시대의 한국 한시

本课时来了解一下三国时代的韩国汉诗。首先要看的作品是高句丽僧人定法师所写的〈咏孤石〉。以‘歌咏孤石’为题的诗作。一起来看一下这首诗。

“迴石直生空，平湖四望通。
岩根恒洒浪，树杪镇摇风。
偃流恒渍影，侵霞更上红。
独拔群峰外，孤秀白云中。”

这首〈咏孤石〉收录于唐代徐坚编撰的《初学记》中。其中记录为‘陈高丽定法师咏孤石诗’。意为‘陈代高丽的定法师所写的咏孤石诗’。虽然无法得知定法师的生卒年份，但根据《初学记》的这一记述，中国南朝的陈代，相当于557年至589年，由此可知，定法师也是在这一时期，即6世纪中期左右进行活动的高丽，即高句丽的僧人。

第一句的‘迴石’指的是高耸入云的岩石，‘直’是‘笔直’的意思。‘生空’意为生于空中。大家不妨想象一下十分陡峭的岩石直冲云霄的样子。而从第二句来看，这块岩石位于平坦的湖面上，四周开阔。出现在平坦的湖水中的岩石，所以看起来会更加突出。接着看下一句。‘岩根’，即从岩石根部来看，湖泊总是水波荡漾，还有‘树杪’，即岩石上的树杪总是随风摇摆。有意思的是，诗中虽然吟咏了岩石下荡漾不止的湖泊水波和岩石上不断吹来的风，但最终想要说的内容是，即便存在这样的水波和风，岩石也不知岁月长久不动，坚守着这个位置。来看一下下一句。下一句歌咏了岩石的美丽外形。‘偃流’指的是卧于湖面之上，躺卧的不是岩石，而是岩石的影子。‘渍影’指的是湖水浸染着倒影。大家可以联想到岩石的影子深深浸入清澈的水中的那种样子吗？‘侵霞’的意思是侵犯了晚霞，晚霞越来越深之时，岩石耸入云霄，侵犯了晚霞，与天空的红霞相映成趣，比晚霞更红。最后一句写道：“独拔群峰外，孤秀白云中。”这一作品以诗吟咏了岩石的样子。

这种诗被称为‘咏物诗’。简单来说就是歌颂事物的诗。而咏物诗经常在歌咏某一事物时，将一些东西寄托与此。歌咏的虽然是事物，但其中蕴含着不同的意义。这首诗歌咏了远远高于周围的其他岩石，在波浪和风中也不动摇，在水中投下影子，傍晚被晚霞染红的岩石。但是这首诗想要形象化的是被比喻为高耸坚硬的孤石的诗人的求道精神或禅定后毫不动摇的

高僧的高洁精神.

下面将看到的这首诗是高句丽婴阳王23年612年, 乙支文德所作的〈遗于仲文〉. 一起来读一下这首诗.

“神策究天文, 妙筹穷地理.
战胜功既高, 知足愿云止.”

据说, 612年隋朝将领于仲文大破高句丽, 来到鸭绿江, 高句丽的将领乙支文德虚意投降, 进入了于仲文的营中. 但于仲文从隋炀帝那里得到了“若遇高元及文德者, 必擒之”的密旨. 当时想要抓住乙支文德, 但尚书右丞刘士龙阻止了, 所以放走了乙支文德. 于仲文对此感到后悔, 于是派人去跟乙支文德说: “更有言议, 可复来也.” 乙支文德不可能再回去. 乙支文德没有听信此言, 渡过鸭绿江回到了高句丽, 于仲文选拔骑兵越过鸭绿江进行追击, 每战都击败了高句丽. 当时乙支文德创作了这首诗, 并寄给了于仲文. 其原因众所周知, 于仲文被乙支文德蒙骗, 隋军在萨水大败.

这首诗的前半部分称赞了于仲文的算无遗策, 而后半部分却警告道: “这就够了, 回去吧.” 事实上, 应该说乙支文德的信息包含在这后半部分中. 从萨水大捷来看, 用计谋无双算无遗策之人不是于仲文, 而是乙支文德自己. 但这首诗引用了典故. 虽然内容有些难懂, 但仔细观察的话, 可以发现第一句和第二句是以《周易·繫辞传上》中的“仰以观于天文, 俯以察于地理, 是故, 知幽明之故.”的内容为基础, 第三句和第四句是以老子《道德经》中的“知足不辱, 知止不殆”这句话为基础. 乙支文德当时在诗中引用了《周易》和《道德经》, 说明了《周易》和《道德经》在高句丽也广为阅读. 而且这首诗也能看出以‘理’和‘止’进行了押韵.

下一篇作品是新罗真德女王于650年创作的〈太平颂〉. 十分特别的是, 题目中出现了‘颂’这个词. ‘颂’是‘赞颂’的意思. ‘太平颂’也就是‘赞颂太平的诗歌’. 〈太平颂〉是赞颂唐朝太平的诗歌. 《三国史记》中记载, 真德王4年650年, 王织造锦缎, 作五言太平颂, 派金春秋之子法敏献给唐朝皇帝. 那么一起读一下这首诗.

“大唐开洪业, 巍巍皇猷昌.
止戈戎衣定, 修文继百王.
统天崇雨施, 理物体含章.
深仁谐日用, 抚运迈时康.”

旂旗何赫赫，钲鼓何煌煌。
 外夷违命者，翦覆被天殃。
 淳风凝幽显，遐迩竞呈祥。
 四时和玉烛，七曜巡万方。
 维岳降宰辅，维帝任忠良。
 五三成一德，昭我唐家皇。”

由此可见，整体上这首诗都在歌颂唐朝和唐皇。作为参考，这首诗是仿照‘苏若兰织锦图’的典故，以回文体写成的。《三国史记》中记录为一般叙事方式，因此无法得知此诗的原貌。另外，偶数句中的‘昌、王、章、康、煌、殃、祥、方、良、皇’是韵字。像上面这首诗一样1句5字，篇幅较长的诗作被称为‘五言长篇’。从始至终押韵不变，使用一个韵目进行押韵，被称为‘一韵到底’，这些内容作为参考，大家稍有了解后略过就可以了。

到现在为止，考察了3首汉诗。定法师的《咏孤石》、乙支文德的《遗于仲文》、真德女王的《太平颂》，大家发现三首诗的共同点了吗？没错。虽然诗的长度不同，但1句由5个字组成是一样的。这种诗被称为五言诗。1句由7个字组成的被称为七言诗。1句5字和1句7字可以看作是汉诗中出现最多的形态。顺便说一下，以上三首诗都采用了古诗的形式。就是古代风格的诗。

最后来看一下新罗使臣与中国诗人贾岛共同创作的汉诗，以此结束本课时。贾岛是以所谓‘推敲’的典故而广为人知的诗人。一天，骑着毛驴走在都城大街上，写下了“僧敲月下门”的诗句，正在苦恼应该用‘推’字还是‘敲’字之时，恰好遇到了当时担任京兆尹的韩愈，贾岛说明原委后，韩愈说‘敲’字更好。贾岛与新罗使臣连句的轶事被记录在明朝蒋一葵编纂的《尧山堂外记》一书中。连句是指一个人或多人分别写1句或多句来共同完成一首诗。据传，这起源于汉武帝与多位大臣共同创作的‘柏梁诗’。连句如下，这是新罗使臣所写的。

“沙鸟浮还没，山云断复连。”来看一下贾岛的连句。“棹穿波底月，船压水中天。”据《尧山堂外记》所载，高丽使臣渡海之时写了这首诗，贾岛装作船夫写下了之后的诗句，高丽使臣感叹一番，自此对诗无话可说。朝鲜中期学者芝峰李睟光说道，高丽使臣为俗世的崔忠献。事实与否无法得知。只是此处的‘高丽’应该看作指代‘新罗’之语。大家认为哪首诗更好呢？

4차시 한국 한시의 여러 양식: 근체시

本课时将学习韩国汉诗的各种形式。与其他文学体裁一样，汉诗中也分为多种形式。只是根据适用怎样的标准，分类的方式可能有多种。可以根据素材或内容进行分类，也可以根据诗的形式进行分类。

首先，从素材和内容来看，可以分为表达个人感情和想法的咏怀诗、吟咏历史的咏史诗、吟咏事物的咏物诗、歌咏自然山水的山水诗、探讨社会问题的社会诗、记录风俗的纪俗诗、思念朋友或故人的怀人诗、哀悼他人的死亡的哀悼诗、寄托于虚构的人物或事物寓意性地表达想法或感情的寓言诗、阐发哲学道理的哲理诗、解读画意或记录感想的题画诗、读完书后以诗作记录读后感的读后诗、与家人或朋友兼作书信相互赠与的赠答诗。总之，诗可以将生活的一切当作素材和内容。

而汉诗的形式，相较于这样以素材或内容进行分类，以诗的形式为标准进行分类更容易理解。中国学者王力在《汉语诗律学》一书中将中国的诗歌大致分为近体诗、古体诗、词、曲四类。其中近体诗和古体诗可以说是汉诗最重要的两种形式，中国的曲被称为元曲，是元代非常流行的体裁。对我国没有产生太大的影响。而词在我国也被认为是汉诗的一个分支，而且诞生了很多优秀作品，所以不妨作为韩国汉诗的主要形式。

汉诗主要两种形式近体诗和古体诗又根据字数的多少、各句字数是否一致、押韵、平仄，重新进行细分。押韵指的是在句子的末端置入具有相同语音要素的文字。平仄指的是指在一句中根据位置不同，排布声音高低不同的文字。用现在的话来说，可以将押韵看作rhyme，将平仄看作tone。因此，根据所选择的汉诗形式的不同，可能会展现出作者不同的诗歌精神。反过来也可以说，诗人们为了应对诗的构思、主题和诗中所想表达的内容，选择了合适的汉诗形式。优秀的汉诗诗人喜欢特殊的形式，将其化用为自己的风格。

之前讲过汉诗的主要形式大致有两种。一种是句数或句子的韵律不受约束的诗歌类型，被称为古诗或古体诗；另一种是句数或韵律有定型的诗歌类型，被称为近体诗或今体诗。这里再细讲一下。

近体诗又大致分为两类。一类是大致有8行，中间必须有对偶组成的句子的律诗。另一类是以4行组成的绝句。长度是律诗的一半。律诗又分为1句5字的五言律诗和1句7字的七言律诗。以律诗为例，第一句称为首联，第二句称为颔联，第三句称为颈联，最后一句称为尾联。

‘首联’的‘首’是指头，‘颌联’的‘颌’是指下巴，‘颈联’的‘颈’是指脖子，‘尾联’的‘尾’是指尾巴。可见是按照从头到尾的顺序给各句诗命名的。五言律诗的每个句前面再加两个字，就成了七言律诗。颌联和颈联必须以对句组成，这与五言律诗一样。

古体诗是与近体诗形成鲜明对比的一种汉诗类型。从上古时代的歌谣到汉魏南北朝时期的乐府歌行、近体诗出现后不遵循近体规格而创作的诗都包含在内。近体诗的诗歌类型确立后，将此前的诗歌类型统一命名为意为‘古诗体’的古体诗。古体诗按字数划分，可以分为齐言形态的四言、五言、七言古诗和杂言形态的长短句、乐府歌行体，按句数划分，可以分为短篇、长篇。长篇一般在10句以上。因为古体诗的形式中，四言诗和杂言乐府体通常独立讨论，因此可以说古体诗的主要形式是五言诗和七言诗，而且各自有短篇和长篇。用表格整理如下。

那么首先来看一下最简单形式-五言绝句。作为以五言绝句凝缩诗思的韩国汉诗的例子，一起来看一下朝鲜前期南冥曹植的道学内容的诗作。曹植隐居智异山山脚的同时，指导庆尚右道的士林。61岁时在德山建造了书室，取名为‘山天斋’。因为对《周易》‘山天大畜卦’中“刚健，笃实，辉光，日新其德”的卦辞深有同感。据说，曹植用刀刻下了“内明者敬，外断者义”的文字，展现了自身追求敬与义的姿态。一起来读一下曹植写的〈题德山溪亭柱〉。

“请看千石钟，非大扣无声。
争似头流山，天鸣犹不鸣。”

如千石般巨大的钟，如果不用力击打的话，不会发出声音。也就是说回声越大的钟，越要用力敲击。而如此巨大的钟也无法与‘天鸣犹不鸣’的头流山争锋。可以看出坚定自己内心，决心成为如‘天鸣犹不鸣’的头流山，即智异山的诗人的意志。

下面作为七言绝句的例子，来看一下朝鲜中期花潭徐敬德所写的〈雨后看山〉。

“睡起虚楼忽上帘，雨馀山色十分添。
看来难下丹青手，云卷高岑露碧尖。”

最后一句的‘露’字是此诗的诗眼。云彩散去之后显露出的碧绿尖耸的山峰象征着对自己开示的真理。可以说，因为诗人拥有淡泊而清新的精神世界，所以可以描绘出如此清澈的风景，而且这种精神活动非常活跃，因此可以捕捉到作为静物的山显露的样子并表现出来。像这样，徐敬德虽然描写的是雨后的风景，但在描写中也蕴含着精神世界。虽然汉诗中不是没有单纯以

技巧创作的诗，但正如上述徐敬德的诗中所看到的那样，即使歌咏山水自然，也吟咏了其中蕴含的活跃的精神世界，而且进而承载拯救现实的意志，可以说这种作品构成了主流。

最后一起来看一首五言律诗，然后结束本课时。作为生六臣之一，别称‘五岁’、为人熟知的梅月堂金时习的〈偶吟〉。

“最怜松竹菊，独守岁寒心。
插棘编篱短，芟林筑径深。
幅巾多野趣，藜杖称闲吟。
萧散遗人事，横经阅古今。”

‘岁寒心’指的是贫穷之时也不会改变的内心。出自《论语·子罕》中“岁寒，然后知松柏之后凋也。”的孔子之语。秋史金正喜在流放济州岛之时，为不曾忘记自己的弟子李尚迪绘制的〈岁寒图〉正是以《论语》中这句话为主题。松、竹、菊都是象征节操和气节的植物。来看一下颔联。插上荆棘，编成矮篱笆，砍掉树丛，形成一条幽深的小路。‘插棘’和‘芟林’，‘编’和‘筑’，‘篱短’和‘径深’依次形成了对偶。颈联也是如此，‘幅巾’与‘藜杖’，‘多’与‘称’，‘野趣’与‘闲吟’分别依次形成了对偶。很好地遵循了五言律诗颔联和颈联必须对偶的基本形式。颔联和颈联都吟咏了悠闲度日的隐士的生活。最后尾联写道：“萧散遗人事，横经阅古今。”‘横经阅古今’说的正是自己与同时代的优秀之人相交为友，如果不够的话，追溯到古代以古人为友的‘尚友’。出自《孟子·万章下》中“以友天下之善士为未足，又尚论古之人，读其书诵其诗，不知其人可乎？是以论其世也，是尚友也。”的章节。埋首深山，独自闲居，阅览经典的同时点检古今之事，又独自与千古之人为友，与世间纷乱无关，如同我最爱的松、竹、菊一样，独自坚守自身节操，可见诗人的这种坚定意志。

5차시 한국 한시의 여러 양식: 고체시, 악부, 사

본课时将学习韩国汉诗的各种类型. 汉诗的类型以诗形式为标准进行分类时, 大致分为近体诗、古体诗、词、曲四种. 本课时将阅读和欣赏韩国古体诗、乐府歌行和词作品.

先来看一下五言古诗作品. 在近体诗的类型确立后, 将之前的诗歌类型, 统一以‘古诗体’之意命名为古体诗. 今天将一起读的是《往五天竺国传》中记载的新罗求法僧慧超的汉诗. 慧超在佛教圣地旅行的同时, 将见闻以《往五天竺国传》记录下来, 其中留下了吟咏自身心境的5首汉诗. 实际上, 这些诗作是韩国汉文学史上最早明确作者姓名的抒情汉诗, 也是几乎遵守定型规则的作品. 但之所以说‘几乎’, 是因为其虽为律诗风格, 但在平仄法和押韵法方面也有不少脱离规则之处. 从这一点来看, 慧超的这些诗作可以看作是古诗范畴内的作品. 在韩国汉文学史上, 直至经过1个世纪之后的崔致远才出现了完整的律诗. 在《往五天竺国传》中, 慧超以散文记录了天竺国的风景和风物、生活的多种形态、传说和风物等, 用诗表现了其求道的思索和孤独的心理.

首先来看一下慧超抵达印度后不久到达波罗那斯国时, 因实现了求道之旅的愿望而十分高兴创作的汉诗.

“不虑菩提远, 焉将鹿苑遥.
只愁悬路险, 非意业风飘.
八塔难诚见, 参着经劫烧.
何其人愿满, 目覩在今朝.”

‘菩提迦耶’是释迦牟尼在菩提树下得道之地, ‘鹿苑’是释迦牟尼得道后首次讲法之地. 从诗的开头就能看出满怀对求道之旅的期待和希望的诗人内心. ‘业风’是指善业之业如风一般, 使人漂流, 使三界轮回, 或指因恶业而产生的烈风. 这里既意味着在旅途中实际遇到的狂风, 也意味着自己内心不断产生的善恶矛盾心理. ‘八塔’是指善逝塔、菩提塔、法轮塔、神变塔、天降塔、和好塔、尊胜塔和涅槃塔. 据说, 因八位圣人圆寂后, 分别建了塔, 所以取了这些名字. 但慧超旅行的时候, 这些塔似乎已经在长久的岁月中被焚毁不存了. ‘愿满’说的是实现了得道之愿, 以表现现在亲眼目睹圣佛事迹的喜悦来结束了这首诗.

再来看一首慧超的诗。慧超从吐火罗国东行到达胡蜜王的巨城的时候，在异国他乡遇到中国使臣而作的诗。一起来读一下。

“君恨西蕃远，余嗟东路长。
道荒宏雪岭，险涧贼途倡。
鸟飞惊峭嶷，人去难偏樑。
平生不扞泪，今日洒千行。”

这次艰难的旅程是寻找佛教主要遗迹的求道之旅，而求道最终是在心中实现的，所以这次旅行也是心灵之旅。在最后一句中写道平生从未流过眼泪，一遇到与自己处境相似的中国使臣，不由自主地流下了眼泪，这一句诗以强烈而热烈的方式展现了求道之旅的艰难、困窘、不安等复杂感情。

接下来看一下乐府作品。乐府本来是汉代掌管宫廷音乐的官厅的名字。而后指代在其中所演奏的歌曲，并且歌词也被称为乐府。其官厅消失后，作为诗体的名称长期存在，乐府体诗中有5言或7言规则性的作品，但也有很多不规则的旧型作品。特别是元末明初出现了引入乐府体的咏史乐府作品，这对朝鲜产生了一定影响。明朝杨维桢以历史和大臣为题材创作了《古乐府》，明朝李东阳以历史为素材编撰了《拟古乐府》。在后者的影响下，朝鲜光海君时期出现了沈光世的《海东乐府》。继沈光世的《海东乐府》之后，政治上怀才不遇的学者和文人大都留下了很多海东乐府作品。朝鲜后期的星湖李瀾以我国历史为主题，创作了120篇《海东乐府》。一起来看一下其中一篇。

有必要了解一下背景事件。讷祗王想见分别被高句丽和倭国扣为人质的弟弟卜好和末斯欣，于是朴堤上去往高句丽，带回卜好，再去往倭国，假装背叛了新罗，试图带回末斯欣。朴堤上让末斯欣独自偷偷回国，不久后自己被倭人抓住被杀。据说他在拷问下也没有改变对新罗的忠心。新罗王听到这个消息后，赠予朴堤上大阿湌之职，让末斯欣娶了朴堤上的二女儿为妻。今天要一起来看的作品就是关于朴堤上夫人的故事和诗。李瀾把朴堤上的故事写成了诗歌〈忧息曲〉，另外还留下了吟咏朴堤上之妻成为鸛述岭神母的传说的〈鸛述怨〉。一起来看一下〈鸛述怨〉的小序和诗。

“解见上。初堤上以死自誓，不见妻子，抵栗浦，已解缆，其妻追至大哭。堤上曰，我已将命，自必死。遂入倭国。后堤上妻率二女上鸛述岭，望倭国痛哭而死，仍为鸛述圣母。今有祠。

有身莫作忠臣妇，夫去成仁妇失依。
 夫去望望东海东，妇哭儿啼怒拂衣。
 焚骨消息定是非，但道人亡王子归。
 哀哀何处诉腔血，鵲迹岭头望朝晖。
 朝晖有来不见往，泪洒西风向天飞。

鱼龙为我愁，雨鸣云霏霏。
 化为原不朽，往迹青山巍。
 忠臣与烈妇，节义双全稀。
 至今圣母祠，蕙族来依依。”

虽然丈夫的牺牲使新罗王室没有忧虑，但因此失去依靠，吟咏妻子的悲伤之情的同时，传达了‘有身莫作忠臣妇’的强烈信息。

在汉诗的多类型中，最后读一下词作。词又称为‘诗余’。产生于唐代末期的9世纪，经过之后的五代到宋代，成为了一种广泛流行的韵文。在韩国，正式开始写词的人物是高丽末期的李齐贤。《益斋乱稿》收录了15调53篇长短句。除此之外，李谷、郑誦、权近、金时习等多位文人也留下了词作。一起读一篇金时习的词作，然后介绍本课时。

金时习共留下了9调9篇词作。一起欣赏一下金时习在50多岁时游览韩国关东地区时留下的词作中，在洞山馆创作的题为《江城子》的作品。‘江城子’是词牌名。词牌可以看作词的曲调名。根据曲调，加入与之相应的歌词。

“海滨孤馆接沧溟，
 倚风櫺望蓬瀛，
 浩渺沧波数点白鸥轻。
 物外浮沈渠似我，渠不竞我忘形。
 异乡千里影伶俜，鬓星星眼青青，
 怪底乾坤身世一长亭。
 若见安期烦寄语，
 千日酒与君倾。”

这篇作品由上阙和下阙组成。用现在的话来说，就是第1节和第2节。在上阙中，吟咏了登上洞山馆，在海边与白色的海鸥相伴，自身的形象达到了忘形的境界，下阙在延续上阙内容的同时，稍微转换了气氛，歌咏了作为流浪者的孤独。成为天地间的流浪者，始终无法摆脱如自身影子般的内心深处的孤独，而且只要自己活着，就永远无法摆脱世间的束缚，希望与中国秦代饮用仙酒成为蓬莱山神仙的安期生一起倒上千日酒，摆脱这一切获得永远的自由。可以说这是一篇表达这一愿望的作品。

6차시 한국 한시의 여러 작가층

本课时将学习韩国汉诗的各个作家层。中国和日本也一样，作为前近代时期汉诗作家主流的是男性士大夫作家。这些士大夫诗人经常将中国诗的特定形式或风格作为典范来作诗。例如，丽末鲜初的文人关于应该将唐诗作为最高典范还是承认宋诗的典范价值的问题，展开了很多争论，并且在自己的汉诗中也反映了所谓‘唐诗风’或‘宋诗风’的特性。但以中国诗为典范作诗的这种现象并不仅发生在韩国。中国和日本的文人也同韩国文人一样，以杜甫或李白的诗为典范，创作自己的诗。从这个角度来看，杜甫和李白不仅是中国诗人，而且是东亚汉字文化圈各国以文本为媒介共享的一种文化现象。

通过书籍的流通，东亚汉字文化圈的各国文人共享这种同类的文字文化。将中国诗作为典范作诗，从外交方面来说也是必要的。例如，在1450年世宗32年，颁登极诏使侍讲倪谦之后，派遣到朝鲜的明朝文官使臣都与朝鲜官员们进行了诗文唱酬，朝鲜将唱和诗作编成了《皇华集》进行刊行。《皇华集》刊行的惯例化成为了两国外交中诗文唱酬发挥重要作用的契机，历代《皇华集》无论是朝鲜方面还是明朝方面，都成为了参考、应对诗歌唱酬的重要资料。而从收录于《皇华集》的诗篇可以确认的是，明朝使臣与朝鲜接宾使之间的‘同文’意识。就是共享相同的文化。例如，收录在庚午本《皇华集》中的中国使臣与朝鲜使臣在成均馆唱和的诗作。首先一起来看一下倪谦的题为〈谒文庙〉的诗作。

“晓向成均谒庙堂，杏坛弘敞碧山阳。
八条教典怀箕子，万世儒宗仰素王。
济济衣冠忻在坐，青青衿佩喜成行。
文风岂特覃东海，圣化于今遍八荒。”

最后所说的明朝天子的文风不仅传到了大海彼岸的朝鲜，还遍布全世界，可以说是作为明朝使臣在朝鲜所展现的一种优越感。朝鲜适当应对、次韵明朝使臣的诗，不是个人问题，而是国家外交问题，《皇华集》作为体现朝鲜文明水平的著述，朝鲜也十分重视。只是为了与中国文人进行交流，大部分典故不得不依赖中国文献。因此，将中国诗作为工具进行活用的同时，蕴含独立自主的文明观，可以说这是朝鲜文人肩负的责任。

那么，一起来看一下当时的馆伴使郑麟趾对于上述倪谦诗作的和韵诗。

“谒圣还从入讲堂，周旋笑语似春阳。
风云气槩凌霄汉，黼黻文章佐帝王。
杜老诗情供得妙，兰亭笔法更分行。
陪游此日真天幸，慙媿吾才拙且荒。”

对于倪谦歌颂明朝天子的教化远及朝鲜，成均馆文物昌盛，郑麟趾称赞倪谦人品出众、文章书法出色，并且感到‘慙媿吾才拙且荒’。不过这只是自谦之词，通过这首诗，既博得明朝使臣倪谦的欢心，又充分展现了郑麟趾的丰厚的诗才。

既然讲到了外交诗，也一起来看一下渤海使臣的外交诗。渤海使臣的诗作在韩国文献中没有记载，大部分都收录于日本文献中。一起来欣赏一下渤海使臣王孝廉在日本创作的《春日对雨情字》。

“主人开宴在边厅，客醉如泥等上京。
疑是雨师知圣意，甘滋芳润洒羁情。”

第二句中的‘上京’指的是渤海的上京，即龙泉府。就像在渤海首都龙泉府一样，在宴会上喝得烂醉如泥。意味着即使是异乡，也会想起在上京大醉之时。也就是说，在异地心情舒畅地享受宴会。而且所谓‘甘滋芳润’，‘雨师知圣意’。可以看作这是将对方国家领导的功劳比喻为降下芬芳春雨的温和之心而赞颂之语。

虽然中国和日本也是如此，但在韩国，文学并不仅是男性士大夫文人的专利。在韩国，僧人、中人和庶孽、女作家创造了不同于士大夫文学的其他形态的文学。其中，在朝鲜统治体制中负责职能性职务和基层行政实务的中人和胥吏发展了闾巷文学。随着商业的发展，首尔开始呈现出近代城市的面貌，市井周边的闾巷人开始发展自己的文艺爱好，个别或集体创造发展了独立的文学。这些闾巷诗人收集自己的诗作，刊行了《六家杂咏》、《海东遗珠》、《昭代风谣》、《风谣续选》、《风谣三选》等，在1917年应该刊行《风谣四选》之时，出版了韩国汉诗的总集《大东诗选》，堂堂正正地列入了闾巷阶层诗人的诗作。

来读一下朝鲜后期的译官高时彦在《昭代风谣》中以序诗形式写的《书昭代风谣卷首》。

“与东文选相表里，一代风雅彬可赏。
贵贱分歧是人为，天假善鸣同一响。”

虽然两班士大夫与闾巷人的身份差异是无可奈何的现实，但因为诗是上天赐予的，所以好诗没有身份的差异，都具有同样的共鸣。因此，可以说这部《昭代风谣》与选录韩国士大夫文人的代表性文章而编成的《东文选》，互为表里，堂堂正正地表现了作为闾巷人的文学自豪感。

朝鲜后期的中人张之琬曾在〈闲居有感赠自然宗人〉这首诗中呼诉在身份社会的桎梏中备受痛苦的闾巷人的处境。

“良马为友，老忠犹可称。
下与僇为比，共归厨下蒸。”

在自嘲、悲观地将中人的处境比作‘马’的同时，通过比喻讽刺、批判了身份社会的不合理。

现在来看一下僧人的汉诗。来读一下高丽后期的禅僧圆鉴国师冲止的〈闲中杂咏〉。所谓‘闲中杂咏’是闲暇之中没有主题的随思吟咏。

“捲箔引山色，连筒分涧声。
终朝少人到，杜宇自唼名。”

诗人独自住在深山庵中。早晨起来，走出屋外，仿佛将窗外的远山像朋友一样拉入山房之中，连接竹筒将溪水引入院子里，听着冰冷又清澈的溪水声。整个早上没有人来山房，只是偶尔会听到杜鹃的声音。可以说用诗的语言表现了禅家所说的‘言语道断’的世界。

下面来看看一下女作家的汉诗。女性汉诗在‘情感的真实表达’方面特别发达。唐代一位名叫薛涛的女子曾作〈春望〉诗，巧妙地抒发了春日女性的哀伤。此诗被诗人金亿翻译成题为〈同心草〉的作品而被我们熟知。一共四首，金亿翻译的是下面这首诗。

“风花日将老，佳期犹渺渺。
不结同心人，空结同心草。”

但不是说女性汉诗都一味侧重吐露感情。朝鲜时代的士大夫女性中也有在诗文中阐述正统性理学理念的作品。出生于畿湖西人家族的任允摯堂和姜静一堂就是这样的例子。任允摯堂曾说“吾虽为妇人，而男女起初天性无异。”姜静一堂也说过“妇人若有大实践和业绩，亦可为圣人。”可以说二人作为女性学者堂堂正正地站在学术中心，自主地发掘发展了人的主体性。很好地展现了这一意志的正是姜静一堂所作的题为〈除庭草〉的诗作。

最后一起来看一下这首诗。

“小锄理荒秽，快雨洒尘埃。
纵愧濂翁意，山茅旧迳开。”

用锄头清除杂草，凉爽的阵雨淋湿灰尘，这都象征着使自己的心灵变得清澈、无尘的修道行为。源自北宋学者周濂溪，即周敦颐为了真实地感受大自然的生命气息，没有割掉窗前杂草的典故。姜静一堂表示虽然有愧于周濂溪先生之志，但将在山中茅屋前重新开辟旧路。也就是说要过像曾经‘开三径’的古代隐士一样生活。吐露这种求道精神之人正是朝鲜的女性。